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희망을 이루는 열린 기회의 나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정책대화

“국가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창의적 개인과 창의적 집단



Contents

7 July 2014 | Vol. 384

정책

기획 희망을 이루는 열린 기회의 나라

- 04 희망이 실현되는 나라, 교육에서 시작된다_ 김인희
06 '차별'에서 '차이'로 나아간다_ 박길자
09 꿈을 향해 올라서는 희망사다리 구축_ 박길자
12 변방에서 중심으로… 농어촌 학교의 특별한 비전_ 한주희



29

15 학부모와 함께하는 정책대화

"국가차원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주세요"
유은종 / 정혜숙 / 최애리

20 정책카툰 인문학 대중화 사업

- 21 정책해설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 균형 발전 도모_ 이규열
24 정책과 소통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역량 높인다_ 이순이
26 만화로 보는 교육부 정부 3.0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28 행복한 교육이야기



36



현장



COVER STORY

서울이태원초등학교(교장 서경수)에는 피부색과 언어가 각각 다른 '우리' 아이들이 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다문화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는 이유다. 등을 포개고 앉아 끼르는 웃음보를 터뜨리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희망으로 오르는 사다리이다.



75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투고를 기다립니다(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

교육논단 창의적 개인과 창의적 집단

- 52 왜 창의적 '집단'인가?_ 박지원
55 창의적 집단을 만드는 구성요건과 교육적 접근_ 박남규
58 행복칼럼 학교 가는 길, 선생님이 되어 가는 길_ 박혜정
60 교육과 법 "선행교육은 무조건 불법인가요?"_ 염철현
62 학교·학급경영노트 과감한 추진력으로 신뢰교육 이끌어야_ 전종공
65 진로나침반 여름방학 진로지도, 학교 밖 보물찾기!_ 허은영
68 아이의 사생활 규범에 대한 세.대.차.이._ 김서규
70 시·도교육청은 지금 대구 / 대전 / 인천 / 경남
74 뉴스브리핑 고등학교 입학 정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외_ 편집실

교양

- 75 일상의 쉼표 고수동굴_ 황자경
78 이야기로 보는 인문상식 가난할수록 더욱 즐기라_ 김병일
80 행복게시판 **행복한 교육** 구독방법과 웹진 안내 & 5자만담





희망을 이루는 열린 기회의 나라

- 희망이 실현되는 나라, 교육에서 시작된다
- '차별'에서 '차이'로 나아간다
- 꿈을 향해 올라서는 희망사다리 구축
- 변방에서 중심으로… 농어촌 학교의 특별한 비전

교육부는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 제공을 위해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농어촌 소외지역 학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으면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누구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 희망을 이루는 교육이 실현되는 나라를 향해가는 현장을 집중 소개한다.



희망이 실현되는 나라, 교육에서 시작된다

글 | 김인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복지정책과가 처음 설치되고 교육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10년이 지났다. 2003년에 시작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¹⁾을 필두로 하여 지난 10년간 교육복지정책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²⁾. 이보다 앞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사회(Edutopia)'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96~1997년에는 5개 영역의 교육복지대책이 수립된 바 있었으나, 이때에는 아직 교육복지의 개념과 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였으므로, 2004년을 교육복지정책 추진의 본격적 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소외 극복으로 보편적 교육기회 실현

교육복지는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교육소외' 현상과 교육기회의 불평등,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헌법에 선언된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정의롭고 생산적인 교육제도를 수립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유네스코의 아동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교육차별철폐협약 등에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떤 이유로도 교육의 기회가 침해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실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도 당연히 이를 지킬 의무를 안고 있다. 2015년에 인

천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교육회의의 의제 중 하나도 'Education for All을 위한 각국의 노력 점검'이 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교육복지는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세계 모든 나라의 교육제도에 공히 적용되는 보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수립된 교육복지종합계획은 교육복지의 대상을 교육소외(교육기회 제한), 교육부적응, 교육불평등 현상으로 보았으며, 김인희(2012)는 교육기회 제한과 부적응을 절대적 소외, 교육불평등(격차, 차별)을 상대적 소외로 보고 이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교육소외'를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³⁾ 곧 교육소외 극복을 통한 보편적 교육기회 실현이 교육복지에 이르는 길이라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간 펼쳐온 교육복지정책도 대체로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지금 까지의 교육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①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학비, 급식비 지원, 방과후 수강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등), ② 교육부적응 해소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정책(학교폭력대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 프로젝트,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지원 등), ③ 사회문화적 불리함을 지닌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탈북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지원), ④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EBS 수능강의) ⑤ 기초학력 부족 해소 및 계속교육 지원 정책(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각종 학업부진 해소 정책, 검정고시제도 운영, 저학력 성인 학습기회 확대) ⑥ 개인적 불리함을 지닌 학습

1)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고 명칭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복지 성격의 사업 규모는 2003년 2,370억 원에서 2014년 38,702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 2014)

3) 김인희(2012). 교육복지 개념의 이론적 재탐색.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소외'라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피해갈 수도 없다. 서울이태원초 다문화교실 아이들

자를 위한 지원 정책(특수교육, 건강장애자 교육지원 등)

'교육소외'는 암세포와 같은 것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영역의 교육복지정책이 추진되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교육계 및 사회 전반의 교육복지의식의 향상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기본적인 학습권에 대한 권리 의식 발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우리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격려와 동시에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사업이라 분류되는 몇몇 정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교육제도의 운영은 교육체제 전반의 운영 원리로 적용되고 작동되어야 하는 핵심 가치이다. 사실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복지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교육복지는 몇몇 예산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며 교육에 대한

우리의 기본 관점, 교육정책 및 교육체제 운영 기본 패러다임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예컨대, 학교부적응을 치유하기 위해 부적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체제가 학교부적응의 소지를 차단하고 부적응하는 학생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교육소외는 암세포나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교육소외는 우리의 교육적 노력을 쓸모없게 만들고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한다. 교육소외는 결국 학교교육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학교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학교체제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면 교육소외는 점차 확산 심화되어 더 이상 치유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적절하고 건강해야 하듯이,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 운영체제, 프로그램, 조직문화가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이는 곧 교육소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교육체제의 '면역력'을 형성하는 핵심요건이 된다.

교육복지는 앞으로 우리 교육에서 더욱 심각하게 제기될 학습자의 '소외'와 '삶의 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관점과 접근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양적 접근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 역량 발휘와 성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질적 접근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김인희, 2012).⁴⁾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소외'라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피해갈 수도 없다. ☺

4) 김인희(2012). 교육복지 개념의 이론적 재탐색.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다문화교육 지원정책

‘차별’에서 ‘차이’로 나아간다

글 | 박길자 기자

“찡기 할매네 토담 안에/ 꽈리나무 많고/ 빨간 꽈리 주릉주릉 달렸고/(중략). 권정생 선생님의 동시 ‘꽈리’에서 예쁘고 정겨운 우리말을 찾아볼까요?”

6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교장 서경수) 다문화교실. 전명미 한국어강사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이 형광펜으로 예쁜 말을 찾아 하나씩 표시했다. 3학년 송예까테리나부르크 양은 ‘도근도근’, ‘요것? 조것?’, ‘오드등’에 밑줄을 그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한 살 때 한국에 왔다는 송 양은 “1학년 때부터 한국어교실에 다니며 단계별로 된 교재로 배우고 있다.”며 “이젠 수업이 쑥쑥 머리에 들어온다.”며 웃었다. ‘무지개교실’로 불리는 다문화교실 한켠에 외국 사절단과 학부모들이 기증한 기념품들이 눈에 띄었다. 중국 옷 치파오부터 일본 가면, 러시아 전통공예품까지 1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취재차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로 지정된 이태원초교를 찾았을 때 한국 국기와 교기 옆에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어 이채로웠다. 이태원초교에 다니는 다문화 아이들은 18개국 50여 명. 서경수 교장은 “다문화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일주일마다 국기를 바꿔 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태원초, 다문화교실 운영

이 학교는 이중언어강사 2명이 정규시간에, 한국어강사 2명이 방과 후에 한국어를 가르친다. 강윤지 교사(다문화 담당)는 “전학 오는 다문화 아이들은 개별 지도를 한다.”며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는지 전학을 많이 온다. 국제학교에 다니다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그동안 다문화 아이들의 한국문화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며 “세계인의 날(5월 20일)이 포함된 다문화 교육주간에 다문화 학부모를 초청해 현지 문화와 풍습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문화학부모회를 만든 것도 재능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들은 한국 아이들에게 현지어를 가르쳐



1

1. 서울 이태원초에는 18개국 50여 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다문화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2

2. 지난 4월 열린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에서 부별중 학생과 교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마라톤대회에는 다문화학생들을 포함해 90명이 참가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이 7만 명을 돌파하는 올해 다문화 교육에 전년보다 약 60억 원 늘어난 총 2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다문화 학생 지원에 중심을 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사업도 지원한다.

주고, 영어를 모르는 다문화 가정에는 가정통신문 내용도 알려준다. 다문화 부모 커뮤니티 ‘서다우’는 지난 해 용산구와 마을축제를 기획했다. ‘서다우’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의 줄임말. 저학년 다문화 아이들에게 고학년 다문화 언니, 오빠가 한글 동화책을 읽어주는 레인보우봉사단도 꾸렸다.

3학년 트레저 우매쿠도(나이지리아) 군은 “어울림 학창단에서 알토 파트를 맡아 5월에 ‘나눔의 밤’ 공연도 하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사랑했다. 어울림 학창단 반주자인 6학년 황혜연 양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친구들과 다른 게 없더라.”며 “남자애들은 축구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우리랑 생각이 잘 통한다.”며 웃었다.

6학년 파르치 안토니오(이탈리아) 군은 “홍콩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7년간 살았다. 5학년 2학기 때 전학 왔는데 한국말을 몰라 친구들과 대화를 못 했다.”며 “한국어교실에서 배워 이젠 자유자재로 말한다. 친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 5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소년의 꿈은 통역사다. 아마노바 잠자골 이중언어강사는 “영하(한국이름)가 7월 중 러시아어 1급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천 부발중, 이중 언어강좌 효과 톡톡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인 경기도 이천시 부발중학교(교장 류광우)도 이중언어 강좌와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로 톡톡히 성과를 냈다. 이천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네 차례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도 연다. 부발중

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중국, 일본, 필리핀 등 3개국 37명. 여름방학 때는 다문화 학생 캠프도 연다. 작년에는 강원도로 3박 4일간 초록길 캠프를 다녀왔다.

채용기 교사(다문화 담당)는 “올해 어린이날을 전후로 다문화 학생 가정방문을 하면서 카네이션을 배달했다. 학부모들이 기대 이상으로 기뻐하더라.”며 “5명 이내로 소규모 체험학습을 다니면서 친밀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150km 하이킹과 춘천마라톤 10km 참가, 프로야구 관람을 했고 올해도 이천도자기마라톤 참가, 진로 캠프, 대학 탐방 등을 했다. 챌린저스리그 기간 중 다문화 학생들이 이천시민축구단을 응원하



고 경기가 끝난 후 봉사 활동도 한다.

다문화 학생들은 토요방과후학교도 열성적으로 참가한다. 다문화 학생 5명이 뛰는 여자축구동아리도 있다. 채 교사는 “예·체능 방과후학교가 통합교육에 도움이 된다.”며 “하이킹이나 마라톤을 함께 경험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짜 친구가 되더라.”고 덧붙였다.

다문화 학생 7만 명 돌파… 다문화교육 사업 확대 추진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이 7만 명을 돌파하는 올해 다문화 교육에 전년보다 약 60억 원 늘어난 총 2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다문화 학생 지원에 중심을 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사업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의 편·입학과 적응 촉진을 위해선 26

억 원을 지원한다. 중도입국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는 예비학교는 종전 52개교에서 80개교로 늘렸다. 교육부 박성수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며 꿈과 끼를 함께 키워가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120곳을 지정, 운영한다.”며 “이들 학교에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이해교육, 반편견 반차별 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한다.”고 소개했다. 교과 연계 다문화교육 자료도 보급한다. 초등학생용 교재 『세상보기, 생각넓히기』는 하나금융 기부를 받았다.

또 정규 수업시간, 방과후학교를 통해 KSL(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을 운영하는 학교를 100개교로 확대했다. 기초학습과 진로지도를 해주는 대학생 멘토링 예산(135억 원)과 수혜 학생 수(2014년 6,000명 이상)도 크게 늘렸다. 수학·과학, 예·체능에 우수한 자질이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전문 교육을 해주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대학은 10개 대학으로 늘렸다.

2012~2013년 선문대 글로벌브릿지 사업에 참가한 경기 의왕시 우성고 1학년 박병찬 군은 “두 달에 한번씩 열린 1박 2일 캠프에서 역사와 문화재를 배웠다. 여름 집중 캠프는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며 “3주짜리 필리핀 영어 연수와 일본 문화체험도 흥미로웠다. 특히 ‘엄마 나라’인 필리핀에서 영어도 배우고, 문화 풍습을 익히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고 말했다.

직업교육 지원기관은 종전 3곳에서 10곳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부산정보관광고(요리), 경기 의정부 신홍대(미용·요리·자동차정비), 서울다솜학교에 위탁 운영했다. 이와 함께 이중언어 교육에 힘쓰고,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도 연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황선국 주무관은 “다문화 학생이 올해 전체 학생 수 대비 1%를 넘어설 것”이라며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어울려 사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120곳이 운영된다. 서울 이태원초 다문화교실 수업 모습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꿈을 향해 올라서는 희망사다리 구축

글 | 박길자 기자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6학년 이영민(가명) 군은 재작년만 해도 토요일이면 보통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이 군이 작년부터는 또래만큼 바쁜 토요일을 보낸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마련된 '토요 꿈 나눔 동아리'에서 직업현장탐방반 활동을 하고 있어서다.

이 군은 "관악FM에선 미디어 관련 직종을 배웠고 경찰박물관, 한미사진미술관에서 경찰관과 사진 작가라는 직업도 공부했다."며 뿌듯해했다. 지난해에는 '진로쌤'에게 진로교육도 받았다. 이군은 "커리어 코치가 학교에 상주했다. 내 꿈은 엔지니어지만 진로교육을 받아보니 직업 세계가 무궁무진하더라."고 말했다.

5학년 김유리(가명) 양도 토요꿈나락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김 양은 교육복지실에서 조식지원 봉사도 하고,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청소년봉사단인 '꾸미나누미' 활동도 한다. 김 양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검사가 되려면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열심히 봉사한다."며 의젓하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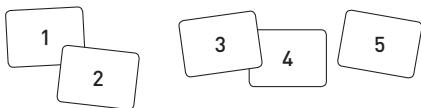
서울 난우초, '해피 아이'로 맞춤형 돌봄 실천

난우초교는 2009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대상자는 270명. 난곡지역 개발로 일대가 아파트숲으로 바뀌면서 삶터를 잊은 가정들이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와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 이 학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초·중·고 통틀어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이종현 교장은 "지역사회와 촘촘하고 탄탄한 연계망을 만드는데 힘써왔다."며 "특히 '해피 아이' 관리프로그램으로 개인 프로파일을 만들어 맞춤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학습 기본기를 다져주려고 기초학력튼튼반, 기초튼튼 영어교실도 운영한다. 8, 9월에는 신림지역 관내 초등학교와 행복가족여행을 다녀올 예정. 특히 '좋은 나, 더 좋은 너, 참 좋은 우리'가 되자는 회복탄력성 신장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이 교장은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 받게 했더니 상태가 나아지더라."며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사업이 강화돼야 한다. 지역사회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제멘토링은 교사 중 90%가 참여할 만큼 관심이 높다. 담임교사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맨투맨'으로 돌봐준다. 요리와 영화 감상, 텃밭 가꾸기 같은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눈다.

엄마풀멘토링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대로 위기가정이나 조손가정, 부자 가정 아이들을 엄마풀처럼 따뜻하게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엄마들은 일주일에 두 번 1학년 아이를 만나 숙제와 알림장을 봐주고, 야외숲체험도 같이 한다. 지원사업 대상 학부모들도 엄마풀멘토링 강사로 참여 중이다.



1. 경기 부천시 중원중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우리동네 탐험대' 아이들이 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2. 경기 부천시 중원중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육복지실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
3. 서울 난우초교 4학년 아이들이 담임교사와 함께 쿠키를 만들며 즐거운 사제멘토링 시간을 보내고 있다.
4. 서울 난우초교 아이들이 엄마풀 멘토선생님과 함께 블록만들기를 하고 있다.
5. 다문화 체험 중인 서울 난우초교 아이들. 2009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촘촘하고 탄탄한 연계망으로 톡톡히 성과를 내고 있다.



학부모들은 재능기부에 열심이다. 도서관에서 영어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나누리 독서모임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도 한다. 2학기에는 책 읽어주는 언니, 오빠가 생긴다. 인근 학교인 남강중 선배들이 엄마들의 노하우를 배워 봉사에 나선다. 특히 결식아동 조식 지원으로 큰 효과를 얻었다. 이지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가출하던 아이가 아침밥을 먹으러 새까매진 얼굴로 교육복지실 문을 열더라. 매일 18명에게 아침을 차려주는데 덕분에 무단결석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경기 중원중, 9년째 '햇살나눔사업' 운영

경기 부천시 중원중(교장 최귀선)은 전교생의 25%인 152명이 대상자다. 부천에서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인 '햇살나눔사업'을 진행해 벌써 9년째다. 남우현 교육복지사는 "위기가정을 방문해 생활·정서지도를 하거나 아이들이 멘토 선생님과 공부나 문화체험을 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돋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졸업한 한 남학생은 지원사업 덕분에 위기를 이겨내고 특성화고에 진학했다. 아이는 자살 위기 도 겪고 감정조절 장애로 폭력사건도 일으켰다. 복지관, 상담센터, 병원, 지역 갤러리, 시민단체 등이 아이의 안정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았다. 남 교육복지사는 "아이가 학교에 안 오는 날은 집에 찾아가서 데려오고 공부, 상담, 문화체험 등 많은 시간을 같이 했다."며 "나중에 학교에 찾아와 '죄송하고 감사했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 했다. 이 학교는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한다. 모든 교사가 학기마다 사흘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아파트단지 내 복지관에서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하고 있다.

아이들과 '우리 동네 탐험대'를 만들어 토요일마다 마을 곳곳을 탐방한다. 목공소 사장의 도움으로 '움직이는 기지'도 만들어 필요한 물건을 넣어 끌고 다녔다. '교육복지실에 가는 아이는 문제가 있거나 가난한 아이'라는 인식, '내가 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는 낙인감을 지우는 게 지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누구나 와서 놀고 싶고, 가고 싶은 교육복지실을 운영하는 이유다. 남 교육복지사는 "알콜의존증을 겪는 아버지가 개입을 강하게 거부해 아이의 폭력상황 파악을 위해 몰래 베란다 밖에 숨어 잠복근무를 한 적도 있다."며 "교육복지사의 소명을 그때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올해부터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3년 45개교(169억 원)에서 2013년 1,833개교(1,575억 원)로 대상 학교가 늘어났다. 올해 예산은 1,438억 원. 지난해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7만여 명을 포함해 취약계층 학생 약 30만 명이다.

올해부터는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공공부조, 지역사회 지원을 우선 활용하되 부족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현물·서비스를 보충적으로 지원도록 했다.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쌀을 전달하거나 보건교사가 치과에 동행해서 치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 교부금 산정 기준(기초수급자 40명 이상 학교 수)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변경했다.

교육부 박성수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수업료·급식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학습·심리·문화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바뀐 상태"라며 "앞으로 교내 교육복지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역할을 더욱 키우고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학교 대상 지원 사업도 시작됐다. 이규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경북대중, 전남대중, 제주대중에 모두 합쳐 1억 원을 우선 지원했다."고 말했다.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운영모델도 개발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모든 학교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급 단위 희망교실 사업을 벌였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학교를 늘리고 학교별 지원액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도록 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 조정자' 등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직명은 '교육복지사'로 통일하고 직무 매뉴얼을 개발, 보급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학교-교육지원청-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간 협의회를 매달 1회 정례화하고, 지역 내 공동사업 운영 등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

변방에서 중심으로… 농어촌 학교의 특별한 비전

글 | 한주희 본지 기자

“인간을 닮은 작은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강원도 홍천군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 3학년 김수현 양은 요즘 과학수업이 즐겁다. 올해 초 고성 도학초, 춘천 서상초 친구들과 화상으로 만나 진동로봇을 만들어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 도학초와 실시간 로봇제작 과정을 공유하며 학교 대표 간 진동로봇 온라인 대결을 펼칠 때는 친구들의 응원전도 치열했다. 김 양은 “로봇을 만드는 KIST 전문 연구원과 화상으로 만나 궁금증도 풀었다.”며 뿌듯해했다.

ICT 활용으로 노천분교의 교실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과학뿐 아니라 국어, 사회 등 거의 모든 과목에서 ICT가 활용되고 있다. 전교생이 10명에 불과한 아이들은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학생들과 화상에서 만나 함께 수업을 듣는다. ‘교실의 벽’이 허물어지고 교육적으로 소외된 농촌학교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있는 것. 노천분교장 김미영 교사는 “분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한 반에 2명인 상태로는 협업학습도, 교류학습도 쉽지 않았다.”며 “원거리 3개 학급 공동수업으로 여러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기뻤다.”고 전한다. 4학년 박예성 군은 “얼마 전 평택시에 사는 친구들과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공부했다. 가보지는 못해지만, 읍내보다 훨씬 큰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한다.

전국 교사들과 협력수업도 교육효과를 높인다. 4학년 국어 ‘표준어와 사투리’ 단원은 인천, 부산 교사의 팀티칭으로 진행됐다. 동막분교 학생들과 화상을 통한 음악리코더 합주 등 학생들 간 새로운 경험과 상호 작용의 기회는 덤이다. 김미영 교사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 많아지고 수업이 활기차졌다.”며 “앱이나 어플을 이용한 가상체험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적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고 귀띔한다.

방과 후 ‘스마트 멘토링’으로 효과 톡톡

충북 보은군 보덕중은 ICT활용 방과 후 활동인 ‘스마트 멘토링’이 인기다. 지난해 스마트기기 촬영/편집 틀을 이용한 영어교육 ‘포토잉글리쉬’, 스마트앱 등의 콘텐츠를 이용한 천체교육 ‘스마트과학교육’, 특수학급 학생 대상 기초영어교육 ‘SayLouder’, 정보통신윤리교육인 ‘스마트보건’ 등 총 7개의 맞춤과정이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도 개설을 준비 중이다. 교내 스마트 동아리 교사들은 오프라인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전교생 55명에 불과한 농촌학교지만, 학습 열기만은 여느 지역 못지않은 이유다. 특히, 스



올해 신규로 지원된 1,700교에는 스마트 멘토링,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스마트 멘토링은 방과 후 시간에 교사, 방과 후 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멘토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체험 학습으로 운영된다.



1. 지난 1월 속초초교 노천분교에서 진행된 원거리 3개 학급 간 '진동로봇' 체험 창의적 과학교실. 학교별 학생대표들이 제작된 진동로봇으로 온라인 대결을 펼치고 있다.
2. 속초초교 노천분교에서 진행된 진동로봇 체험 과정은 화상 연결을 통해 고성 도학초, 춘천 서상초와 서로 공유된다.

마트보건 프로그램은 학생동아리 '사이버 향기'에서 적극 참여했다. 온라인 게임 등을 지향하는 학생 중심의 스마트앱을 소개하는 한편,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갔다. 올해는 동아리 활동에 ICT 적용을 확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사이버 향기와 더불어, 스마트방송국에서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신청곡을 온라인으로 받아 점심시간 음악방송을 진행하고, 발명동아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등 사이버 활동이 활발하다. 2학년 김상원 군은 “지난해 스마트 멘토링 수업에도 참여하고, 학교 수업을 편집해 온라인 카페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했다.”며 “스마트 기기를 다루면서 컴퓨터 공학자의 꿈도 꾸게 됐다.”고 자랑한다. 배협 방과후학교기획부장교사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기주도학습력도 높아졌다. 교사에 의해 일방적 교육을 진행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ICT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학습콘텐츠 확보와 교사들의 스마트기기 활용 기술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스마트 멘토링’은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스마트교실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농산어촌 ICT활용 시범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통신인증 AP 2대와 태블릿 PC 21대를 구입한 덕분에 구축할 수 있었다. 배협 부장교사는 “교과수업 활동 외에도 ICT 활용은 스마트멘토링의 형태로 아이들의 학력과 특기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올해 2,000개교로 ICT활용 지원 확대

올해 교육부의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큰 축은 ICT활용 지원사업이다. 학생의 학습여건 개선과 문화·예술 체험 확대를 위해 지난해 300교에 머물던 농산어촌 ICT활용 시범학교를 올해 2,000개교로 크게 확대했다. 이규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교육부 예산 121억 원이 ICT활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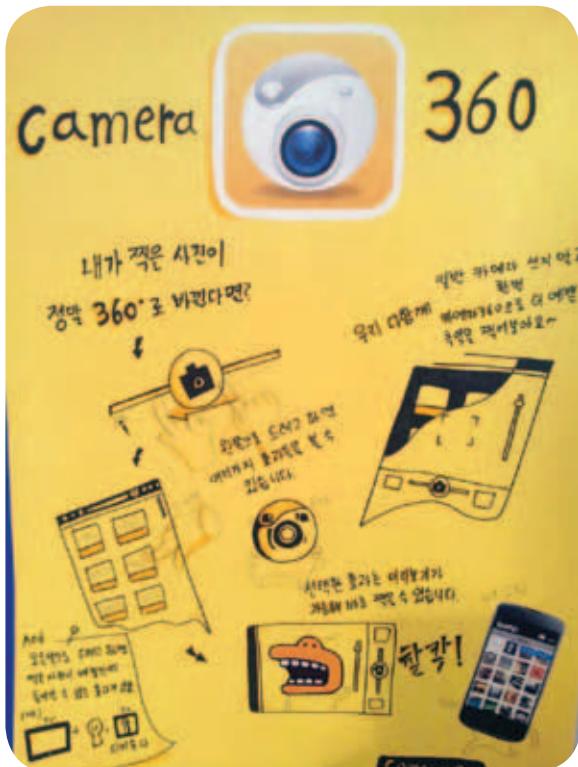
사업에 투입된다.”며 “내년에는 약 4,000교에 달하는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로 지원이 확대된다.”고 말한다.

올해 신규로 지원된 1,700교에는 스마트 멘토링,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스마트 멘토링은 방과 후 시간에 교사, 방과 후 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멘토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체험학습으로 운영된다. 학생체력평가 앱, 인물로 보는 한국사 등의 지난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한 학습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현재 에듀넷에는 웹 자료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맞는 다양한 100여 가지 추천 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국가이러닝품질관리센터는 품질인증제 도를 통해 좋은 콘텐츠 선택을 안내하면서 ICT 활용 학교를 적극 지원 중이다.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ICT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사이트도 구축될 예정. 강덕기 학생복지정책과 주무관은 “문화체육관 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의 ICT 콘텐츠를 통합 사이트와 연계한다.”며 “국립민속박물관 등 9개 기관의 콘텐츠는 약 3만 2천 건에 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육정보화 시스템은 지원이 제한적인 농산어촌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는 농어촌 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거점별로 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해 학생들이 농어촌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초등학교 전원학교, 기숙형 고교에 비해 중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선정한 20교 외에 올해 신규로 30교를 선정하고 총 50교에 교당 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 학교에는 기숙사·통학버스 운영을 통해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오케스 트라·스포츠클럽, ICT 활용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광역학구제, 학교장 공모제, 진로교사 우선 배치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 우수 중학교가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역할을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강덕기 주무관은 “2015년에는 80교로 확대된다.”며 “올해만 교육부 예산 252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❷



충북 보덕중 '사이버 향기' 동아리의 스마트 어플 홍보물



“국가차원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주세요”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즈음, 교육부는 인성중심 수업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꿈끼 주간 운영,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발굴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인성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다. 이유는 뭘까. 학부모들이 인성교육 정책담당자를 직접 만나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인성이 꽂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본다.



참석자

유은종 교육부 인성예술체육교육과장

정혜숙 경기 청계초등학교 학부모

최애리 서울 상현중학교 학부모

대화 일시

일시 : 2014년 6월 18일(수) 오후 2시

총괄 : 곽은우 본지 총괄 교육연구사

진행 : 황자경 본지 편집장

정리 : 한주희 본지 기자

진행자 |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적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은종 | 인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 하지만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분야라 할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 인성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인성교육의 일환

이라 볼 수 있지요.

진행자 |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정서는 어떠신가요.

정혜숙 | 인성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돌봄을 받지 못한 일부 아이들의 문제로 치부됐지만, 지금은 너무 똑똑하거나 잘난 아이들의 인성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아이들이 반에 1~2명만 있어도 선생님은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폭력



예방법 등을 제정해 인성교육에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아이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아이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인성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응 방식은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애리 |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사춘기’라는 이유로 쉽게 면죄부를 주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장래 하고 싶은 일을 물으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중심의 부모 생각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투영된 결과라 볼 수 있지요.

유은종 | 초고속으로 이뤄진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에 성적 지상주의를 낳았습니다. 지식 습득 위주로 교육이 중시되면서 인성은 소홀하게 취급되었지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수준인 반면,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 등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OCE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공동체 참여율 또한 비교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교과 성적이 아니라 타인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적 사고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는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며,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하지요.

모든 교과 수업에서 인성교육 실천해야

최애리 |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 학교의 경우, ‘둘레길 학부모와 함께 걷기’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성교육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스며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혜숙 | 초등학교는 학교 재량에 따라 체육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활동 시간을 따로 배정하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기본 교육이 아니라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 학교교육에 ‘인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해지다 보니 교사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지요.

유은종 | 인성교육을 위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마다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하지요. 이와 함께 가정과 사회가 인성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범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 기업,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박람회’를 개최했고,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더불어 인성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생적인 인성교육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동아리를 발굴·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 인성교육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성이 부각되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평소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아이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의 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길 바라거든요.

최애리 |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교과수업에 반영합니다. 국어교과에는 ‘생각노트’가 있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수학이나 영어 시간에도 UCC 만들기, 모둠활동 등을 통해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은종 | 최근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가 학업성적이 높다는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성과 학업성적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각 교과마다 인성교육 요소는 반영돼 있습니다. 이를 교과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범국민적 노력 필요

진행자 | 스포츠클럽이나 예술교육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체능 활동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나요?

유은종 | 초등학생은 대부분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과정 등에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도 1주일에 2~3시간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도입 초기엔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학생·학부모의 호응도 높고 교육 현장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돼 나가고 있어요. 더불어 예술교육 강화를 통해 인성을 순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애리 | 토요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건 좋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로 바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저하되는 건 아닐지 우려도 됩니다.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스포츠클럽 활동을 온전히 즐기기란 어려울 것 같아요.

정혜숙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한다면 더욱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나 헤드헌터 등 여러 기

업인이 학교 현장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인성이 중요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학부모들이 몸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행자 | 인성을 대학 입시나 평가에 반영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유은종 | 점수화와 입시에 반영되는 인성교육 평가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왜곡되기 쉽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인성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와 기업에서 인성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중요한 부분이





라 할 수 있지요. 요즘 들어 굴지의 대기업에서 길거리 캐스팅 등 인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인재를 채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성적보다 인성이 능력이 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 형성되고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은종 | 지난해부터 처음 시도되고 있는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성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계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民間단체, 기업 등이 함께 하는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입니다. 인성교육이 잘못되면 학교가 잘못 가르친 것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진행자 | 교육기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은종 | 교육기부는 재능이나 시설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차원의 인프라라 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 네트워크는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교육기부와 비슷하지만, 교육공동체가 학교 안과 밖에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최애리 | 지역단위 네트워크에서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문을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아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졌어요. 인조잔디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기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더군요. 담배 피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로 연락을 주거나 '우리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정혜숙

인성교육의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

진행자 | 뭐니뭐니해도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뜻이 클텐데요.

유은종 | 과거에는 3대가 대가족을 이루며 형제간 위계질서를 통해 인성교육이 이뤄졌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녀가 1~2명인 핵가족을 이루고 있고,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지요. 인성교육의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KT와 '신사임당'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녀의 올바른 IT 사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가정 내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 '부모와 함께 도서관 가기' 등 학교에서 숙제 형태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

정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할 때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유은종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자녀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수고에 불과하지요.

진행자 | 인성교육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최애리 | 인성교육이 공익광고처럼 사회운동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성이 경로사상과 동일시되 기보다는 어른이 아이를 대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입학사정관제는 아이들의 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 입학전형이지만, 스펙을 자

랑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입학전형의 본질을 잘 살리는 방안도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혜숙 | 학교가 지역사회에 문을 활짝 열어야 해요. 학부모나 민간단체의 의견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통이 보다 원활해져야 하지요.

진행자 | 개인적으로 교사임용에서 인품이 훌륭한 지원자가 입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의 룰 모델이 돼야 해요. 임용시험에서 지적 수준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합당한 사람인지 여부를 잘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유은종 |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며 앞으로 인성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초·중·고등학생 인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직, 절제, 자율, 책임 및 성실, 배려 및

소통, 예의, 정의, 시민성, 인류애, 지식 및 지혜 등 10개 덕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학교급별 인성 교육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인성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인성교육진흥법’을 공동발의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인성교육 강화를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사춘기'라는 이유로 쉽게
면죄부를 주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최애리



인문학 대중화 사업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 균형 발전 도모

'17년까지 1,200억 지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학교의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육성코자 「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13년 20교를 선정하여 교당 5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14년 30교, '15년 30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0교에 대해 선정된 해부터 3년간 학교당 연 5억 원씩, '17년까지 총 1,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13년 20교 → '14년 50교 → '15년 80교 → '16년 60교 → '17년 30교(사업완료)).

표1. 선정 및 지원규모 현황

선정 학교 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교 내외		20교 내외 × 5억 원 내외				
30교 내외			20교 내외 × 5억 원 내외			시·도별 지방비 확보
30교 내외				30교 내외 × 5억 원 내외		
총 80교 내외	100억 원	250억 원	400억 원	300억 원	150억 원	

※ '14년~'17년 예산은 사업 내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농어촌 중학교 육성,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교육 구현

농어촌 학교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교육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기숙형 공립고 150교에 약 6,200억 원을 지원하여 육성(08~'13년)하였으며, 초등 전원학교도 585교에 약 2,100억 원을 지원하여 육성(09~'13)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중학교 단계를 집중 육성하여,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개 군에 최소 1개의 기숙형 거점 중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20교를 농어촌 거점 중학교로 선정·지원하였으며, 학교별로 신청한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교당 5억 원 내외로 3년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기자재비, 통학비, 시설비(기숙사 신축 등) 등에 사용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면 지역에 소재한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로서, '17년까지 폐교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도 지원 가능하다.

- '17년까지 폐교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초·중, 중·고,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신청 가능(중학생 60명 이상)
- 시·군별 1교 선정 ('13년 기 선정된 20개 시·군 제외)

선정된 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학교 스포츠클럽 또는 예술 동아리(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프로그램(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패드 활용) 등을 운영하고, 영어 등 외국어 집중 교육, 국내외 진로 체험 등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학교에 비추어도 손색없을 특성화된 농어촌 학교로 집중 육성한다.

도시 지역 학생이 쉽게 입학·전학(광역 학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공모제(초빙형)를 실시하며,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우수중학교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 운영

이와 함께 정부3.0의 일환으로, 우수중학교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시·군)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수중학교 선정 시 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정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지역행복생활권

-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 넘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지원 강화
-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간 합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지원('14. 3.~)

올해 농어촌 거점 중학교로 선정·지원된 학교의 3년간 지원액 총 15억 원(교당 5억 원씩)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자재 장비 구입, 통학버스 임차, 기타 시설비(기숙사 신축 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절차는 우선 시·군별로 1개 교를 소속 시·도교육청에 추천하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6개 교를 1차 선정하고, 이후 교육부가 최종 심사하여 지원 대상 학교를 확정한다.

최종 심사는 사업 목적 및 기대 성과(40점), 프로그램 운영 방안(30점), 지역사회 협력 방안(20점), 예산 운용 방안(10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사업 목적 및 기대성과(40점)에 1차 평가에서 이뤄진 시·도교육청별 예비심사 결과를 20점 반영한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거점 중학교로서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이러한 선정 방법은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각 시·도교육

'14년 농어촌 거점 중학교 선정절차

(1단계) 교육지원청별로 1개교를 시·도교육청에 추천 ⇒ (2단계) 시·도교육청별 자체기준에 따라 최대 6개교 선정 ⇒ (3단계) 교육부 주관으로 30개교 최종 선정

청 심사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 중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농어촌 중학교 육성,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농어촌 생활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취약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 등의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교육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기숙형 공립고 육성, 초등 전원학교 육성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학교 단계를 집중 육성하여,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 중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리적·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지역으로 전학 가지 않아도 농어촌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표2. 2013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역별 현황

구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경기	강원	인천	충남	충북	세종	전남	전북	제주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신청	6	-	2	6	5	1	6	1	1	6	6	-	1	1	42
선정		5			5			5			5				20

표3. 2013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명단

권역	시·도	수	선정 학교(교육지원청)	권역	시·도	수	선정 학교(교육지원청)	
수도권 (5)	경기	3	상품중학교(여주), 남문중학교(동두천양주)*, 지평중학교(양평)	경상권 (5)	경남	1	군북중학교(함안)*	
	인천	2	강남중학교(강화), 백령중학교(남부)		경북	3	안계중학교(의성), 영해중학교(영덕), 오상중학교(구미)*	
수도권 (5)	충남	2	충남-광석중학교(논산계룡), 송산중학교(당진)		대구	1	포산중학교(달성)	
	충북	2	충북-삼성중학교(음성), 단성중학교(단양)		울산	-		
전라권 (5)	세종	1	연서중학교(세종)		계	20		
	전남	3	창평중학교(담양), 세지중학교(나주)*, 해제중학교(무안)*	※ 공립 15교, 사립 5교(*표시)				
	전북	1	동화중학교(정읍)	※ 사업 비대상: 서울, 광주, 대전 / 신청서 미제출: 강원, 부산				
	제주	1	안덕중학교(서귀포)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역량 높인다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600여 명 순회교육

최근 카드 3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을 금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의 내부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순회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2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을 시작으로, 6월 19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6월 26일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순회교육을 마쳤다. 오는 7월 3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순회교육까지 마치면, 본부 및 소속기관 7곳, 교육청, 지원청 및 산하기관 190여 곳, 대학 400여 곳, 공공기관(대학병원 포함) 21곳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600여 명의 교육이 마무리된다.

개인정보보호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돼야

순회교육에서는 홍원일 교육부 정보보호팀장의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및 CPO의 역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홍원일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는 개인·교육기관·국가 안전 및 발전의 필수 요소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신분증 위조, 명의도용, 유괴 등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스미싱, 파밍 등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집단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초·중·고교에서는 나이스와 에듀파인 서비스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스쿨뱅킹 등을 이용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학점은행제, 대학병원 진료시스템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환자의 의료·진료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밖에도 대학에서는 학사관리시스템과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사관리와 유학생들의 정보를 다루고 있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력했다.

교육부는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종합적·체계적인 보호기반을 확보하여 교육기관의 핵심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시로 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교육기관·국가 안전 및 발전의 필수 요소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신분증 위조, 명의도용, 유괴 등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스미싱, 파밍 등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웹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현장에서 과도하게 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아이핀, 공인인증, 휴대폰인증 등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할 대체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령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홍원일 팀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파기하는 과정이 잘 이뤄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공시제’로 개인정보 오남용 줄여

한편, 순회교육에서 고려대는 ‘개인정보 공시제’를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 목적 외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홈페이지에 한 달간 이 같은 정보제공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다. 즉 병무청에서 학적보유자 명단을 요청하거나 채용을 목적으로 기업에서 학력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됐음을 알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여 전자결재 문서로만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



6월 12일 서울교대에서 진행된 수도권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순회교육 모습

다고 소개했다.

그밖에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자기록물의 보안을 강화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물 접근범위 재분류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정보보호교육센터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내부관리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순회교육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서 제공하고 있다. ②

제 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교육부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 정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주민과 고령자 등 평생학습 소외계 층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와 양질의 OER*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겠습니다.
3.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웹기반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 복사수정배포할 수 있게 온라인에 공개된 교육자료

교육 현안에 귀 기울여... 행복교육 만들기 한마음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달. 교육부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학교 급식의 안전을 점검하고, 일반계 고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한, SW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동참하고 창조경제 인재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 및 각계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소통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포럼 2014 자문회의에 참석한
서남수 장관 (5/28)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5차 회의 (6/2)



2014년 제2차 전국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서남수 장관 (6/12)

사례 발표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천안사생중학교 방문
(6/2)



예멘 고등교육 차관 교육부 방문 (6/2)



2014년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우수학교 유공교원 시상식 (6/3)



각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논의 (6/5)



일반계 고교인 서울 누원고등학교 수업 참관
(6/5)



2014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나승일 차관 (6/16)



성남장안초 방과후학교는 우수한
강사로부터 수준별, 소인수 수업으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진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던 학생들이 활짝 웃고 있다.

성남장안초등학교

150여 방과후 수업–돌봄교실 연계해 시너지 폭발

성남장안초(교장 송근후)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환상의 조합을 이룬다. 4학급의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이 학교는 1~3학년 생 103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한다. 150여 가지의 강좌가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늦은 시간까지 개방하는 학교도서관을 연계한 우수 프로그램이 있기에 돌봄교실도 탄력을 받고 있다. 도시지역의 여건과 교육열이 높은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형 맞춤 EDU–CARE'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성남장안초를 들여다보자.

수업을 마친 고학년들이 학교를 빠져나가는 오후 3시경이면, 초등학교는 조금 한산해진다. 하지만 성남장안초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3학년생은 물론이고, 고학년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대부분 학교에 머물기 때문이다. 운동장에서 축구 삼매경에 빠져 땀을 뻘뻘 흘리는 학생에서부터, 교실 곳곳에는 다양한 방과후 수업이 한창이다.

교실 한쪽에서는 첼로를 배우는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5명의 학생들은 김형석 강사로부터 1:1로 레슨을 받으며 첼로를 배우고 있다. 소인수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100분 동안 5명의 학생들이 골고루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연주를 하는 동안 100분이라는 시간은 항상 짧기만 하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바이올린 수업이 한창이다. 신청자가 많은 바이올린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양상블반이 있어, 학생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년에 상관없이 수준별로 소인수 수업이 이뤄지고, 또 단계별로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함께 가는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바이올린 초급반 수업이 끝나자 고사리 손으로 아무지게 악기를 정리한 어린 학생들은 돌봄교실로 복귀했다. 돌봄 교사가 챙겨주는 간식을 먹고, 몇몇은 다른 강좌를 듣기 위해 돌봄교실을 빠져나갔다. 그것도 잠시, 막 축구를 끝낸 학생들이 땀으로 몸이 흠뻑 젖은 채 돌봄교실로 들어섰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3학년 학생은 103명. 현재 돌봄교실 4학급이 운영 중이다. 이 곳에서 아이들은 돌봄 교사가 챙겨주는 간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시간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자의 시간표대로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을 수시로 드나든다. 시간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간식 먹는 시간도 돌봄교실에 머무르는 시간도 각각 다르지만 엄마의 손길로 간식도 챙겨주고 시간에 맞춰 한 명 한 명 챙겨 해당 교실로 보내는 것도 돌봄 교사의 역할이다.



채기화 돌봄 교사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요일별, 시간별로 개인플래너를 작성하고, 개인플래너에 따라서 학생들의 방과후 수강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돌봄교실 4학급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밑바탕은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있기에 가능하다. 음악영역만 하더라도 첼로와 바이올린 외에도 클라리넷, 플로트, 클래식기타, 포크기타, 리코더, 영어뮤지컬, 합창반 등이 수준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30명의 단원들로 꾸려진 ‘스트링오케스트라’는 성남장안초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오케스트라 예비반인 ‘윈드오케스트라’에도 20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 스트링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윈드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멋진 하모니를 들을 수 있다.

성남장안초는 현재 외국어, 수학, 과학, 언어, 음악, 스포츠 등 13개 영역의 15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월 ~토요일까지 학생들은 학원이 아닌, 학교 안에서 부족한 학습을 채우고, 개인의 흥미와 소질을 탐색하고 특기를 기르는 등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우수한 강사진과 수준 높은 교육, 사교육 기관에 비해 저렴한 교육비, 여기에 학생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안전한 학교라는 점 등이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여유시간 관리까지 책임지는 가정처럼 안락하고 따뜻한 돌봄교실 운영체계를 갖추면서 ‘돌봄’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와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학교

150여 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성남장안초가 도시지역의 학교이고, 학부모의 교육열이 매우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학교의 변화는 송근후 교장이 공모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찾아왔다. “작은 일도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공교육을 살리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확신했습니다. 그 대안이 방과후학교이고, 돌봄교실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도서관, 이중언어/다문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송근후 교장은 변화를 시도하기에 앞서 ‘학부모와의 소통’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 학년별로 토론회를 열어,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부모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에 대해 수준별 수업이 어렵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하기 어렵다, 단계별로 연



1. 성남장안초의 돌봄교실 프로그램인 RG(Reading Gate) 시간. 아이들이 영어도서관에서 영어 책읽기를 한 후 돌봄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2. 즐거운 축구교실
3. 성남장안초는 시간표가 제각각인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여유시간 관리까지 책임지는 등 세심한 손길로 가정처럼 안락하고 따뜻한 돌봄을 하고 있다.

계하기 어렵다, 수강인원이 너무 많다,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시간에 아이들에게 충실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죠. 학부모들 중에서는 영역별로 전문가 수준의 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교육의 또 다른 주체로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송 교장의 설명이다.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의 운영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개설부터 강사 채용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성남장안초에는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지원단이 있다. 학부모지원단은 방과후학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게 하는 든든한 베팀목이다. 91명의 모니터요원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매의 눈으로 개선

학교의 자랑인 오케스트라 단원들

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영어, 영재과학, 음악, 수학, 언어/한국사/다문화, 미술/과학, 스포츠/특별영역별로 학부 모위원회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학부모지원단과 50여 명의 강사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성공하고 있다.

학부모지원단 문재인(학부모대표) 씨는 “강좌가 100만 개가 있어도 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질 관리에 성공해 주목할 만한 케이스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방과후 대기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설명한다. “학부모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학교와 같은 스텝으로 가다보니,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부담도 되지만 작지만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방과후학교의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 영어책읽기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평소 ‘독서하는 아이는 따라갈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송 교장은 이 점에 착안하여 영어책읽기를 적극 도입하였다. 온오프라인 통합 영어독서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모델학교를 꿈꾼다. 이 프로젝트는 다독기반의 영어교육으로 언어습득을 위한 최소노출시간인 1만 시간에 도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여러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영어독서 및 영어도서관에 관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현재 소장된 영어도서 3,000여 권이 도서관과 영어도서관에 나누어 비치되어 전교생이 활용하고 있다. 이 책이 양질의 온라인 RG(Reading Gate) 영어독서프로그램과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그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방형 모델학교 선도

성남장안초는 학교 안팎으로 더불어 배우는 교육으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삼협(三協) WAO(We Are One) 정신으로 지역사회 개발형 모델학교를 선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학교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학교의 자랑인 오케스트라의 창단은 분당동에 소재한 남동발전소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약기를 지원받았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중 국제교류를 통해 중국 심양시 제2치공초등



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한·중 국제교류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또한 명지대학교 영재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재교육 3개 교실을 개설, STEAM 융합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및 교육관련 기관, 자자체, 기업체 그리고 해외학교 등과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인력·프로그램 지원과 동시에 교육, 문화, 예술, 국제교류 행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교육의 장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학교도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월에는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 개방형 도서관으로 개관했다. 1층에 위치한 교실 5칸 규모의 도서관에는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5시까지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도 수시로 학교도서관을 찾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국제다민족 언어주말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한다. 스페인어, 러시아어는 인근에 가르치는 곳이 없어 배울 길이 없던 주민들에게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성남장안초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삼협 WAO 정신은 아이들을 해맑게 웃게 하고,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학교도서관은 평등교육의 산실

잠자던 학교도서관을 깨우고, 가꾸고 다듬어서 생명을 불어넣은 교사들이 있다.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회장 백화현·서울국사봉중학교 교사)은 15개의 지역모임과 1,100명의 정회원, 3만 명에 육박하는 온라인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이지만, 시작은 14년 전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은 열혈교사 5명의 '어떻게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당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libte>)는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은 교사들에게 지혜의 샘과 같았다. 학교도서관모임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서부터,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독서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교도서관이 학교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아침독서, 문학기행, 독서캠프, 독서치료 등의 용어가 낯설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학교도서관모임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교사들은 이런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부터, 한발 빠르게 학교도서관모임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아침독서를 보급하고, 아이들과 문학기행을 떠나고,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캠프를 열어 책 속에 '풍덩' 빠져보고, 독서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왔다. 특히 '읽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초등 읽기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습부진이 누적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습능력과 인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 끝에 학교도서관 운동과 독서운동에 더욱 애정을 쏟게 됐다.

"평등교육의 중심에 학교도서관이 있어요. 기초를 놓친 아이들은 어느 순간 학습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자기부정에 빠지고 못난이라고 생각하죠.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배움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학교도서관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고 꿈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백화현 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학교도서관모임은 한발 나아가 책을 좋아하지만 친구와 노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책과 친구를 연결한 프로그램



1.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운영위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 온라인 카페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출간한 책들

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독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소년인문학캠프'를 지원한다. 학교도서관담당자(담당교사, 사서교사, 사서, 자원봉사자 등) 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사업도 추진한다. 그밖에도 카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정리해 출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 그동안 「학교도서관 희망을 꿈꾸다」, 「콩닥콩닥 신명나는 책놀이」, 「북미 학교도서관을 가다」, 「유럽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 등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북유럽 도서관 탐방기를 엮어 올 연말에 출간할 예정이다.

지역모임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인천지역은 문학기행과 책놀이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연구 중이며, 전북지역은 그림책 및 북아트 연구, 인문학캠프가 활발하다. 경남지역은 그림책 연구와 함께 도서관활용수업자료 〈꿈에 날개를 다는 책읽기〉(초등), 〈배움과 나눔의 프로젝트학습〉(중등)을 개발하여 경남의 전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국어과와 연계하여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밖에도 강원지역은 전 교사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청소년 독서아카데미, 인문학릴레이사업 등을 교육청 및 지역모임과 연계하여 활발히 진행 중이다. ②



장귀선 경남 밀성제일고 교사

“조바심 내지 않는 산처럼… 기다리고 함께 합니다”

산과 같다. 높은 만큼 속이 깊으며 묵직하게 자리 잡아서 조바심내지 않는다. 장귀선(55) 경남 밀양 밀성제일고 교사의 얘기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어긋난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나눔을 실천하며 아이들 곁에 머무른다.

남은 교직생활 동안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장 교사의 한결같은 목표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장귀선(55) 경남 밀양 밀성제일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공짜’를 바라지 말라고 가르친다.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이들과 꾸준히 봉사활동에 나섰던 건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이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곧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절실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서서히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봉사활동을 멈출 수가 없지요.”

장 교사에게 ‘봉사’란 엇나간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나침반이자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도록 만드는 요술봉과도 같다. “교사인 나에게도 ‘힐링’이 되는 활동”이라는 그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가 열정을 되새기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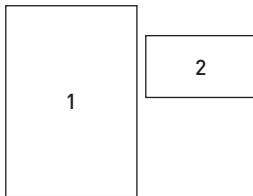
봉사의 ‘붐’을 일으키다

장 교사는 밀성제일고에서 봉사의 ‘붐’을 일으켰다. 전 근무지였던 밀성여중에서도 봉사단체 ‘누리단’을 8년간 이끌어 온 그는 2008년 밀성제일고에 부임한 후 한국청소년연맹 한별단(102명) 창단을 시작으로 2011년 인터렉트 클럽(60명), 지난해 GCS 밝은사회(30명) 태동을 이끌었다. 전교생 46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이미 봉사 단원으로 학교는 역대 가장 규모가 큰 학생봉사단을 자랑하게 됐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건 쉽지 않았다.”는 그는 “봉사활동 점수를 많이 주냐고 묻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다. 생활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요양원, 복지관으로 찾아가 훌로 사는 어르신과 친손녀 맷기를 하고 아침교통봉사 등 교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주관하는 체험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애들아~ 봉사활동 가지!’며 장 교사가 먼저 공지를 띠우면 한 회당 20~30명이 자율적으로 모여드는 데, 주말이나 방학에도 활동은 꾸준히 이어진다. 그는 언제나 아이들과 동행하며 활동사진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 아이들은 사진을 보며 작지만 소중한 추억을 다시 한 번 간직하게 된다. 스승이 앞장서 제자와 한뜻으로 동행하는 ‘사제 동행’이 이런 걸까. 학생들의 변화를 이끄는 건 결국 교사다. 조해동 밀성제일고 교장은 “교감 때부터 옆에서 지켜봐온 세월이 한 두 해가 아니다. 자기 시간을 모두 쓸더라”고 전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전임 교장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에 두 번 매주 금요일은 봉사활동을 갑니다.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꼭 봉사활동을 가지요.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어요. 봉사를 꾸준히 함께 다니다 보면,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나중에는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더군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되다보니 제 스스로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처벌 대신 봉사를… 부적응 아이들을 품다

장 교사가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 건 2000년대 초 밀성여중에 근무하던 때였다. ’86년 초임교사 시절부터 걸스카우트 지도를 해 왔던 그는 밀성여중에서도 봉사단체인 ‘누리단’을 이끌었다. 학교에서 시험 부정을 저지른 학생을 전학시키려고 할 때, 그는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권했다. 당시만 해도 봉사활동으로 처벌을 대신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 다들 고개를 흔들 때였다. 장 교사는 반대를 무릅쓰고 “전학이나 징계를 받는다고 아이들이 바꾸는 건 아니다.”라며 학생들을 이끌고 봉사활동을 다녔다. 지금까지 가정이나 학교에서 칭찬보다는 꾸중이나 비난



1.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고 안마하며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는 사이 교사와 학생 간에는 '동지애'가 생긴다. 장 교사와 봉사단체 학생들
2. 학생들은 요양원, 복지관으로 찾아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친손녀 맷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만 받아오던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표정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요양원에 머무르면서 어르신들께 안마를 해드리고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하고 인정해 주자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더욱 눈길을 주게 됐지요.”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수학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고 안마하며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는 사이 '동지애'가 생긴다. 일상적인 대화를 되도록 많이 시도하려고 노력한 탓도 크다. 장 교사는 “기출한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몰래 연락을 주기도 한다.”며 평소 말썽을 피우며 교사를 적대시 하던 아이들이 ‘내 편’이 되어 준다고 귀띔한다.

곁에 있어주는 교육부터 시작

그는 교무부장으로 학교 행사를 기획할 때도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열중했다. 특정한 학생이 아닌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획한 오리엔티어링 대회(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 스포츠)가 대표적. 대회에서 일등을 한 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경호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왔다. 평소 어떤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아이가 요양원 봉사활동에도 동참했다.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하고 인정해 주자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더욱 눈길을 주게 됐지요.”

“쉽게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지켜봐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등한시 하지 않고 위안을 주는 것은 교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 교사는 특히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큰 의미를 둔 것도 아이들 곁에 오래 머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달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사제동행 산행을 기획하고, 교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영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려는 데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뒀다. 더불어 다양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봉사의 의미를 항상 느끼게 해주는 건 그의 제자인 손정희 씨다. 학교 도서관에 후배를 위해 오랫동안 책을 기부해 온 그는 장 교사와 만남 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점심 식비를 후원하고 있다. 장 교사는 나눔을 실천하는 그를 ‘날개 없는 천사’라 부른다.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지원하며 멘토가 되어 준다. 봉사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게 하는 제자”로 꼽는 이유다.

나눔을 실천하는 삶 살아가고파

체육교사인 장 교사는 산행을 특히 좋아한다. 매달 전교생과 산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짜기도 했던 그는 조바심을 내지 않는 산의 묵직함이 좋다. 장 교사가 좋아하는 이창건 시인의 ‘산’이란 시 구절이다. 산은 / 높이만큼 / 뿌리도 깊다 / 세상을 겉으로 보기보다는 / 안으로 본다 // 그래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 나무들이 잎을 더디 피우거나 / 물벌레들이 눈을 늦게 띠도/ 조바심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산처럼 조바심내지 않으려 합니다. 기다려 준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에 언제나 될까 오늘은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산처럼 겉으로 보기보다는 안을 살피면서 교직생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드리 힙번을 닮고 싶은 이유도 하나다.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며 마지막 남은 생애를 보낸 그녀의 마음을 본받고 싶어서다. 오드리 힙번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장 교사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꺼내 읽어 보곤 한다. '(중략)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돋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돋는 손이다' 남은 교직생활 동안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한 결같은 목표다. 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복한 교실 희망 수업 만들기 프로젝트'

나눔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수업코칭'

기존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에서 벗어나 교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참된 성장을 하도록 이끄는 수업 코칭이 있다.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복한 교실 희망 수업 만들기 프로젝트'는 나눔으로 선 · 후배 교사의 동반 성장을 이끈다. 교실 내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교사 스스로 치유가 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찾았다.

올해로 교직경력 10년차인 덕정초 문현선 교사. 그는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수업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힐링'을 경험했다.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생각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1년간 수업코칭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달성을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수업시간 '자, 자'란 표현을 자주 쓰고 있었고,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강압적인 말투를 쓰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업코칭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려하면서 수업코칭단의 멘토링으로 협동학습 기법도 수업에 적용해 봤지요. 1:1로 매칭된 수업코칭단은 수업기술뿐 아니라 학급경영,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매 시간 아이들과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누적된 피로와 상처를 치유 받은 느낌이었지요."

학교부적응 학생인 현수(가명)의 지도는 지난해 문 교사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다. 매 수업마다 아무 것도 안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친구를 방해했던 현수. 수업코칭단이 제안한 '현수의 행동수정 일지 쓰기' 미션은 △학습장 · 교과서 준비하기, △수업시간에 장난 안하기, △이상한 소리 안 내기 3가지 행동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스스로 일지를 쓰도록 한 것이다. 미션 수행으로 학습장 · 교과 준비하기는 현수가 매일 실천하게 돼 그에게 뿌듯함을 안겼다. "현수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했다."는 문 교사는 아이의 성장을 통해 교사로서 얻은 기쁨이 더 컸다고 말한다. 올해는 교육부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뽑혀 1년간 교육연구에 매진하게 됐다. "수업코칭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내 속에서 배움에 대한 의지가 일어났다는 것이다."라는 그는 지난해 수업코칭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들과도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꾸준한 성장을 준비 중이다.

심층 상담코칭으로 실천 의지 내면화

지난해 양주교육지원청 수업코칭 프로그램인 '행복한 교실 희망 수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는 총 9명. 참가 교사들은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은다. 심층 상담코칭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최초 담임을 맡으면서 수업코칭을 신청한 조홍대 동두천신천초 교사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했다."고 말한다. 희망 코칭영역도 다양하다. 재미난 수업 설계나 아이들과의 소통 및 관계 형성, 문제 학생 지도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코칭이 이뤄진다. 김정은 장학사는 "수업 개선에 한정된 코칭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관, 수업관, 학생관 등 심층 상담코칭을 통해 교사 스스로 문제를 하고, 실천의지를 내면화해 교사의 참된 성장을 돋는다."고 말한다.



“수업코칭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려하면서 수업코칭단의 멘토링으로 협동학습 기법도 수업에 적용해 봤지요. 1:1로 매칭된 수업코칭단은 수업기술뿐 아니라 학급경영,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매 시간 아이들과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누적된 피로와 상처를 치유 받은 느낌이었지요.”

‘행복한 교실 희망 수업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코칭단인 박필례 회천초 교사, 강숙영 상수초 교감과 침가교사 문현선 덕정초 교사, 올해 첫 수업코칭단이 된 이희숙 소요초 교감(사진 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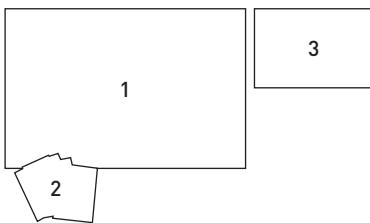
지난 2012년 5명으로 시작한 수업코칭은 지난해 9명, 올해 1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참여했던 교사의 추천으로 신청한 교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김정은 장학사는 “교직경력 3~4년차 된 교사가 많다. 입소문을 타고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신청 사연도 제각각. 군 복무 후 복귀하거나 교육청 파견 근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 ‘감’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음을 읽는 코칭으로 자아성찰 이끌어

수업코칭을 성공적으로 이끈 건 수업코칭단이다. 상담전공자, 수업명인, 학급경영 우수자, 교육학 전공 박사 등 교사의 성장을 다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코칭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3명씩 한 팀을 이뤄 1:1로 참가 교사와 매칭된다. 지난해 수업코칭단에 합류한 박필례 회천초 교사(전문상담 전공)는 “교사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건 아이들과의 관계이다. 코칭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된다.”고 말한다. 현재 모든 수업코칭단마다 전문상담 교사가 1명씩 참여하여 질문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일어나도록 수업코칭을 이끈다. 수업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과감히 없앴다. 이희숙 소요초 교감은 “보통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라고 교사를 질책한다. 여기서는 열린 질문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간다. 코칭스킬은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업코칭은 1년간 진행된다. 코칭단은 연초 수업코칭에 앞서 ‘수업코칭 대화법’을 듣고 수시로 코칭 연수를 받는다. 팀별 수업코칭 사전협의에서는 코칭 대본을 만들 정도로 참가 교사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허투루 던지지 않는다. 강숙영 상수초 교감(수업명인)은 “오후 3시에 만나서 밤 10시까지 토론이 이뤄질 정도로 교사의 수업영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수업영상을 4~5번씩 보면서 말투 하나라도 자세하게 살피는 전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된다. 단지 교수·학습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아이의 소통과 시선, 반응 등을 논의한다.”고 말한다.

팀별 수업코칭으로 심층 수업 분석

초반 교사들의 수업공개의 거부감을 없애는 데는 수업코칭단의 이러한 노력도 한 몫을 차지했다. 올해 수업코칭단은 22명. 중학



1. 수업코칭단마다 전문상담 교사가 1명씩 참여하여 열린 질문을 통해 자기 성찰을 일어나도록 수업코칭을 이끈다.
2. 수업코칭 후 참가교사가 작성한 수업 성찰 일지
3. 수업코칭단은 3명이 한 조가 돼 참가교사와 1:1로 매칭된다. 수업코칭단은 2~3명의 코칭을 담당한다.



교 교사의 참여가 늘면서 교과전문성을 살린 코칭단이 다수 참여했다. 수업분석과 코칭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팀별 수업코칭단의 사전협의에 따라 각 교사별로 미션이 주어지는데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침 칭찬타임 만들기', '점심시간 아이들과 산책하기', '문제 아이와 매일 개인적인 대화를 무심하게 하기' 등이다. 이희숙 교감은 "아이의 눈을 보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하듯 수업하는 여 교사가 있었다. 본인이 모범생으로 자라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며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안 하더라. 미션으로 아이들이 대답할 때 교사 입으로 재진술 하기, 지휘봉 놓고 수업하기 등을 미션으로 했다."고 말한다. 현재 그

는 자신의 틀을 깨고 아이들과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장교 출신의 한 교사는 아이들의 무질서한 모습을 참지 못했다. 수업코칭단은 교사와 협의를 통해 사제동행을 미션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수행한 미션은 일지를 통해 정리했다. 강숙영 교감은 "2차 수업코칭에서 만났을 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줄 서라'가 아니라 '줄 서자'고 말하게 됐다."고 말한다. 수업코칭 기간에는 감정코칭 연수, 학생과 의사소통 방법 등 워크숍도 다양하게 진행돼 교사의 성장을 돋는다. 박필례 교사는 "코칭은 교실 안에서 얼마나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한다.

나눔으로 선·후배 교사 동반 성장

수업코칭의 또 다른 장점은 코칭단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희숙 교감은 "코칭단 사전협의를 하면서 내가 수업을 이렇게 진지하게 본게 언제였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웃는다. 문현선 교사는 "선배교사의 경험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10~12년차가 된 중경력 교사들에게 꼭 필요하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남은 교직생활에 목표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처음엔 스스로를 완전히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그는 "착한아이 콤플렉스가 있다는 걸 10년 만에 알았다. 이제는 오히려 편해졌다. 정해진 틀을 깨고 벗어난 기분"이라고 웃는다.

올해로 3년 째. 수업코칭은 지역 내 교사들의 열정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김정은 장학사는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강원도나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온다."며 "동두천은 지역적으로 낙후돼 있어 교사들의 열의가 꺼이곤 했다. 수업코칭으로 교사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❸

보라매안전체험관

재난대피훈련 ‘몸으로 익힌다’



서울의 도심 속 자연생태공원에 위치한 보라매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과 안전의 소중함을 배우는 안전교육 전문 체험관이다. 실제와 같은 가상체험공간에서 서울도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위기 상황에 맞는 대응요령을 전문소방대원들에게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보라매안전체험관은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4가지 재난체험관과 심폐소생술과 같은 기본 응급처치와 다양한 소방시설의 작동원리와 조작법을 배워 볼 수 있는 전문체험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재난 체험을 시작해 보자.

화재 재난 시 “알린다” “대피한다” “전화한다”

첫 번째 코스, 여긴 지진체험관. 지진체험관에는 리히터 규모 7.0 규모의 실내지진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실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한 후에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턱자 아래로 대피하는 훈련이다.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각자 가스, 전기, 대피로를 하나씩 맡아 안전하게 대피하는 훈련으로, 몸에 익혀 실제 위기 상황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익힌다. 다음은 지진으로 붕괴되는 건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훈련. 실제 상황처럼 어두컴컴한 통로를 몸을 숙여 벽을 잡고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전기에서 불꽃이 튀고 낙하물이 떨어져 가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두 번째 코스 태풍체험관에는 초속 30m의 강풍과 시속 300mm의 비를 동반한 태풍의 위력을 체험할 있다. 난간에 손을 잡고 있어도 몸을 가누기 힘들만큼 거대한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고, 급류를 통과해 탈출하는 체험이 이뤄진다. 태풍은 일기예보를 통해 미리 예측이 가능한 만큼 태풍 발생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태풍이 발생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운다. 이 곳에서는 구명조끼 착용법과 구명환 등으로 익사자를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운다. 단, 태풍체험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초등학생은 체험이 불가능(바람체험만 가능)하며, 중학생 이상만 체험이 가능하다.



세 번째 코스는 화재체험관.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 이곳에서는 노래방에서의 화재대피 훈련,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체험이 이뤄지며, 완강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불이야”하고 외쳐 외부에 알리고,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구조과정에서 완강기 사용법을 전혀 모





르는 체험자들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사용법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화재 사고는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을 설명하고, 화재영상을 보면 서 물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체험도 이뤄진다.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한 청소년~성인에게는 소화기, 소화전 사용을 권하거나 어린 학생들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상책.

마지막 체험코스는 교통사고체험관. 이곳에서는 버스사고 체험을 통해 안전벨트와 운전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철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배울 수 있다. 특히 화재와 테러에 대비한 지하철 대피 교육은 반드시 받아보길 권한다. 체험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4D 체험관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실전대비 훈련, 재난 사고 피해 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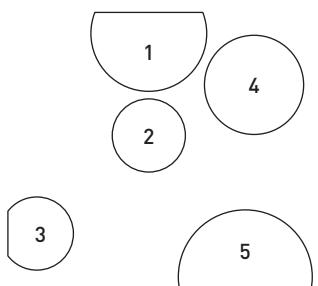
재난체험과는 별도로 전문체험관에 체험신청을 하면 응급처치실습과 소방시설 실습을 받을 수 있다. 응급처치실습실에서는 심정지, 기도폐쇄 등 주요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실습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실습실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 및 가스계 소화설비 등 대표적인 10여 종의 소방시설을 직접 만져보며 실습할 수 있다.

이창호 반장은 “태풍이나 지진, 화재, 교통사고, 선박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사고들이지만 이런 재난 사고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분 1초가 아쉬운 사고 현장에서는 우왕좌왕 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전대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라매안전체험관 1층에는 소방역사박물관이 있어 우리나라 소방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시대별 자료와 함께 소방복제 및 주요 대형 화재 등 역사적 기록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3층에는 어린이안전 관람장이 있어 소방 안전퀴즈, 119에 신고해요 등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보라매안전체험관은 만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며, 초등학생 및 장애인이 체험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이용 가능하다. 유아를 동반할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한 재난체험이 가능한 서울 광나루안전체험관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한편, 최근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인식을 반영하듯 8월말까지 평일과 주말 낮 체험은 모두 예약이 종료된 상태다. 지난 5월부터 야간 체험과정(오후 7시)을 개설하고 있으니 이 시 간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모든 체험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험 전에 사전예약은 필수. 훈

폐지址 (<http://safe119.seoul.go.kr>) 문의 : 02-2027-4100

- 
1. 보라매안전체험관 전경
 2. 3. 5 서울문영여중 2학년 학생들이 보라매안전체험관을 찾아 재난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지진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화재 진압 체험
 4. 소방역사박물관 내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_ 대구 신암중학교 사례 & 간담회

체험학습 흥미 교과수업으로 유도가 과제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을

지난 5월 28일 대구 신암중 '전문직업인의 만남'의 날. 각 교실에는 꿈을 찾아온 아이들로 분주하다. 판사, 경찰, 승무원, 소방관, PD, 네일아티스트, 정육사 등 15명의 직업인은 각각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맞았다.

"연극배우는 인간의 영혼을 들어다 높다하는 예술가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다른 직업을 권하고 싶어요."

배우가 꿈인 아이들은 문화예술전용극장CT 연극배우 이광희 씨를 만났다. "연극영화에 꼭 진학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에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 점심시간 직후지만 책상에 엎드려 있는 아이는 없다. 수학교과교실에는 아나운서가 꿈인 학생들이 모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꿨다."는 TBC 대구 방송 최진주 메인앵커의 생생한 경험담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조명숙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올해 초 자유학기 도입 후 진로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평소 아이들이 궁금해 하던 직업인을 초청해 아이들의 호응이 높다."고 귀띔한다.

예술·체육활동 중심점 자유학기 운영

대구 신암중은 올해부터 2학년 1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 중이다.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이후, 학교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다. 조명숙 진로진학상담부장은 "학생들 표정이 밝아졌다.

오후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데 학생들이 엎드려 잘 틈이 없다."고 말한다.

교과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이 중심이 됐다. 모둠활동과 토론·탐구학습이 활발해지고 블록타임으로 교과 간 융합·연계 시



방송연출가 진로특강

도도 두드러졌다. 영어 시간에 'DIY패션'을 만들어 영어로 표현해보고 음악 시간에는 팬플루트를 만들어 음계를 연주하는 등 수업마다 변화를 꾀하는 분위기다. "수업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 눈빛부터 달려져 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오후에는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예체능 활동이 주를 이룬다. 아이들은 텁발을 가꾸거나 금호강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자전거하이킹을 떠나고,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인라인 롤러를 배우고 파워댄스를 추는가 하면 K-pop과 국악을 함께 배우는 시간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는 예·체능 관련 체험학습장 29개, 경북대·YMCA 등 11개 기관과 MOU를 채



연극배우 진로특강



자유학기 학습결과물



신암중 교사와의 간담회

결하면서 코티칭(co-teaching) 등 협력수업도 이끌었다. 곽종한 교무부장은 “오후에는 음악, 예술, 스포츠 등 예체능 활동과 진로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며 “맞벌이 가정이 많고 저소득층 학생이 비교적 많은 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한다.

“교사도 행복한 자유학기가 돼야”

자유학기제는 2016년이면 전국 모든 중학교에 도입된다. 올해 첫 자유학기를 경험한 신암중 교사들은 자유학기가 학교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취재 당일 학교를 방문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권충현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정부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그간 운영과정에 겪었던 문제를 지적했다.

신유임 교육연구부장은 “교직경력이 24년차이지만 수업에 대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고민하긴 처음이다. 아이들이 즐거울 때는 교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며 “요리반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러한 열의가 교과 수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자유학기 동안 내신을 산출할 성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학기 성적이 특목고 등

고입에 기종 반영된다.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백순근 원장은 “고입 내신 성적 반영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이 잘 모른다. 필요한 정보는 정확히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에 당부했다.

자유학기를 담당하는 김상희 교사는 “자유학기는 학교가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이 학교의 뒷”이라며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개설했지만,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해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신혜정 교사는 올해 초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발령받아 자유학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후 예체능 활동이 끝난 후 아이들이 다시 방과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자유학기 동안이라도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곽종한 교무부장은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해야 자유학기가 성공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여유 교사가 있어야 하고, 체육관·유휴교실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가 근무지를 이동하는 공립학교는 학기 초에 인사가 이뤄지고 나면 학교마다 자유학기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재능기부에 자유학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 재능기부단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암중 교사들은 “공부는 못해도 다른 장점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과 재능을 이끌어 내는 데 자유학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교사의 업무가 기중되는 데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대영 교사는 “자유학기로 아이들이 행복해 한다. 하지만 교사들도 행복하고 수업이 즐거워야 한다.”고 전했다. ☎

운영모형

교시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예·체능	선택Ⅱ	선택Ⅰ	예·체능	예·체능
6			진로탐색		동아리
7	진로탐색	예·체능	동아리	방과후 학교	

- 기본교과(20)+진로(2)+예·체능(7)+선택(2)+동아리(2)+별도자율과정(2)=총 34시간
- 별도 자율과정은 중간 및 기말고사 기간에 전일제 5일로 34시간을 확보해 운영
- 학생 수요를 고려해 5월 2주에 프로그램 재선택
- 수요일 5, 6, 7교시는 선택, 동아리, 진로를 배정해 순차적으로 반일제 체험활동 실시

자율과정

구분	프로그램 영역	세부내용
예·체능 프로그램	음악	합창, 국악 K-POP 합주, 국악 K-POP
	미술	미술마음여행, 표현의 즐거움, 미술과 직업
	체육A	건강활동, 경쟁활동
	체육B	도전활동, 여가활동, 표현활동
선택 프로그램	예·체능 선택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업사이클링디자인, 영화매체 속의 음악, 스포츠하이킹 및 내 몸 만들기
	교양 선택	스팀과학반, 영화와 문학, 텁발가꾸기, 체스·스도쿠, 녹색탐구 자전거하이킹반, 요리쿡·조리쿡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글로벌 에티켓반, 문화답사반, 스토리텔링반, 중창반, 미술체험반, 책쓰기반, 사진영상반, 스포츠드림반, 진로탐색반
	스포츠	주당 1시간 배정 운영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탐색A	교과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탐색B	지역 연계 진로체험 및 가정연계 학부모 교육기부 일터체험 활동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적 교육 강국 싱가포르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2012) 결과, 핀란드가 지고 싱가포르가 떴다. 한국 역시 PISA에서 높은 성취를 자랑해 왔으나, 이번에 싱가포르는 수학, 읽기,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보다 상위를 기록했다. 총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는 전 영역 2~3위권에 올랐고, 문제해결능력은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대학 경쟁력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까지 세계적 교육 강국으로 떠오른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이 국가 생존과 직결… 4개 언어 공용어로 채택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약 531만 명의 작은 도시국가이다. 면적은 서울의 1.13배에 불과하고 식수조차 수입해야 할 만큼 부족한 나라이다.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세계 언론들은 이 작은 섬나라는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 대부분이 무단정착촌에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실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업률도 10~12%에 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중계무역항은 19세기 이래 개발이 미진하여 더 이상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나라를 세계일류 국가로 이끈 것은 바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자원이 달리 없는 상황에서 국가 생존과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약 74%, 말레이계 약 13%, 인도계 약 9% 등으로 구성된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국가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에 각 인종 간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국민의 영어 습득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청년층은 100% 가까이 영어를 구사

나라를 세계일류 국가로 이끈 것은 바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자원이 달리 없는 상황에서 국가 생존과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용주의적 교육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과정부터 대학까지 매 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걸러내기' 과정으로 경쟁

싱가포르의 기본 학제는 유치원 3년,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4~5년), 고등교육(주니어칼리지 2년, 직업훈련원 3년, 한국의 전문대학과 비슷한 폴리테크닉 3년), 대학교 4년이다. 초등학교는 190개, 중등학교 168개, 주니어칼리지 22개, 직업훈련원 1개, 폴리테크닉 5개, 인터내셔널 스쿨 40개, 대학 5개가 있다. 각 학교급으로 진학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는 초등학교 6년 과정 후 실시하는 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중학교 4년 과정 후 치는 시험인 GCE O Level, 고등학교 2년 과정 후 치는 시험인 GCE A Level이 있다. GCE A Level을 친 후에 대학교로 진학한다.

싱가포르는 나라의 미래가 전적으로 유능한 인재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통한 교육 정책을 펼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5년간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을 판단한 보고서를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는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절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인재를 고르고 또 골라내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세 등급의 우열반이 정해지며, 초초등학교 6학년 때 치르는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졸업 시험에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유급을 시킨다. 초등학교를 2년 더 다닌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불합격자는 직업훈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일단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진로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초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실력에 따라 학습과정을 달리함으로써 학생들은 효과적인 수업을 한 덕분에 싱가포르 중등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적인 시험에서 싱가포르는 항상 1, 2위를 기록한다. 경쟁력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싱가포르는 동남아 교육의 허브, 세계 교육의 허브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적극적인 '토론자'

싱가포르는 학생들에게 자아인식, 윤리 기준, 미래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여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

최근 싱가포르는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보다 더 넓은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 질문을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특별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상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와주고 생애에 걸쳐 학습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데 있다.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주도적 학습자, 적극적인 시민, 적극적인 토론자이다. 그래서인지 싱가포르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암전한 학습 분위기로 수업을 받지만, 어떤 문제를 두고 토론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된다. 영국인이나 서양인처럼 토론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변한다. 엄한 규율과 제약에 짜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은 싱가포르 교육 정책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언어, 수학, 과학, 인문학, 예술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기본 단계, 초등 5~6학년은 상위적응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초등교육의 전반적인 목표는 제 1언어인 영어와 모국어의 습득, 수학과목의 성취이다. 4년의 기본 과정 후, 상위적응 단계에서는 성적에 따라 3개의 우열반으로 학급이 편성된다. 중학교에서는 영어, 모국어 외에 제 3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수학은 기본적인 수학과정 이외에 고등수학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과정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 프로젝트, 리서치, 영어와 시사에 중점적인 교육을 받는다.



질문 중심의 사고력 평가로 전환... 경쟁위주 교육시스템의 한계 노출

최근 싱가포르는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보다 더 넓은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 질문을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특별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상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에서 특별활동(CCA, Co-Curricular Activity)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런 클럽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과 팀워크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으며, 창조적인 생각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싱가포르의 교육방향이 싱가포르 아이들이 세계적인 학력평가에서 눈에 띠는 성적을 거두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쟁 위주의 교육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진 싱가포르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 스피드시대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남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경쟁위주의 교육시스템이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의 싸이가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❶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그 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근처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애도를 표현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지난 5월 28일, 목포혜인여자중학교(교장 조웅현)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내어 놓으며 세월호 추모 성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물건을 기꺼이 내어 놓은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600여 명의 전체 학생들이 성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 물건들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물건이 바자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동날 정도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기부된 물건은 약 1,000점이었고, 판매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무려 29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바자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결같이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았고, 자신들의 물건과 용돈이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위한 성금이 '학생들이 직접 주관한 바자'를 통해 모금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포혜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독특한 생각을 해낸 것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선생님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융합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융합 교육을 주도한 목포혜인여자중학교 김동수 교감선생님은 "세월호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했던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큰 희생을 그냥 시간 속에 묻혀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했고, 더욱 가치 있는 열매로 승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치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여 명의 선생님들도 교감선생님이 제안한 융합 교육의 취지에 동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융합교육에 참여한 모든 선생님은 교과별로 세월호로 인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추출하고 수업을 재구성하여, 학



목포혜인여자중학교 학생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언니, 오빠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다짐의 글을 '동곡의 벽'에 노란 리본 모양으로 붙였다.

생들과 함께 다양한 모형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사실과 연관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 자발적 마음결 바자'와 '추모 음악회'입니다.

추모 음악회는 '작은 눈물에 음표를 달아 희망을 노래하며'라는 주제로 1부는 '추모', 2부는 '희망', 3부는 '다짐'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으며, 목포혜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 익힌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너무 크고 슬픈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통해 우리도 무엇인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술작품과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언니 오빠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짐의 글들이 어우러져 슬픔 속에 머물지 않고 희망을 다짐하는 감동과 아름다움이 있는 음악회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목포혜인여자중학교의 위와 같은 실천은 우리 교육이 지속해서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글 | 손균숙 명예기자(목포하당초 교사)

텃밭축제로 소통과 사랑 실천

수원서광학교는 청각장애, 정신지체 학생으로(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 이루어진 특수학교임에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실시한 학교농장 공모에 선정되어 학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위해 유·초·중·고별 텃밭을 분양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가꾸고, 수확한 농작물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학교농장에서 개최된 '텃밭축제' 현장을 찾았다. 인근 동원고등학교와 통합교육을 7년째 실시해 오고 있지만 늘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에 두 학교 담당교사가 협의한 끝에 격주 교과 통합과 학교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다.

그 결과 5월 28일 개최된 '텃밭축제'를 두 학교 학생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서광학교 친구들과 동원고 친구들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야생화 화분에 물주기, 고추 지주대 세우기, 야채 수확하기, 야채 씻기, 비빔밥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직거래 장터 등 많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이곳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기훈 군(동원고)은 "수확한 채소로 수원서광학교 친구들과 함께 비빔밥과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장애인 친구들도 우리와 똑같다고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기 수원서광학교 고등부 학생은 "직거래 장터에서 우리가 가꾼 농작물을 판매할 때는 뿌듯했어요. 동원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함께 활동할 때는 제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잊을 정도로 재미있게 활동했어요."라고 말했다.

수원서광학교는 학교농장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과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통해 얻는 수익금은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을 만드는 '사랑 나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장을 제공하고, 장애극복의 기회와 지역사회와의 어울림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기르고 자주 자연과 접하게 함으로써 정서 함양을 도모할



학교농장에서 개최된 텃밭축제의 이모저모. 잡초뽑기(위)와 고추지주대 묶기(아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항상 도움만 받던 장애인에서 자신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서광학교 학생들을 그려볼 수 있었다. ☺

글 | **한명숙** 명예기자(수원서광학교 교사)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의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흡연음주예방교육 체험교육, 체감형 성교육 '와~ 소행성 버스'(국미경) / 공주여자고등학교 대학생 교육도우미제, 대전대회초 행복밥상마리교육(김종우) / 하동교육청, 6.25 화개전투 참전 학도병을 만나다, 하동초, 문화원에서 모셔온 정기룡 장군을 만나다, UN, 경남교육청 '위안부 일대기' 출판에 감사편지(김철수) / 녹양도서관 '길 위에 인문학'(박민영) / 제28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손경애) / 사회과 창의지성 역량강화 연수(양자훈) / 선배님을 통해 배우는 호국보훈(이규배) / 나라사랑 마음 찾아가는 다양한 행사 펼쳐(이하성) / '얼쑤~'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정수진)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 → 명예기자 리포트



교육논단

창의적 개인과 창의적 집단

- 왜 창의적 '집단'인가?
- 창의적 집단을 만드는 구성요건과 교육적 접근

왜 창의적 ‘집단’인가?

글 | 박지원 LG경제연구원 경영연구부문 책임연구원

사람들은 흔히 지금까지 한 명의 천재가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룹 지니어스(GroupName Genius)』의 저자 키스 소여(Keith Sawyer) 교수는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혁신적 성과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통찰력을 이끌어낼 때 가능했으며, 개개인의 통찰력을 모았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인정받았지만 사실 광범위하게 구축된 동료 네트워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고, 발명왕 에디슨도 골방에서 혼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교가이며 협업가였다고 전해진다.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저자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똑똑한 소수가 경제를 이끌던 이코노믹스(Economics)의 시대가 끝나고 다수의 집단 창의성(지성)이 경제를 주도하는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많은 미래학자나 경영학자들은 집단 창의성(지성)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있다. 그렇지만 집단 창의성(지성)의 발현은 생각만큼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 창의성(지성)의 발현, 어떻게 해야 할까?

집단 창의성(지성)이란 무엇인가?

집단 창의성, 혹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집단 창의성(지성)은 미국의 과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한 개체로는 매우 미미한 흰개미들이 협업을 통해 과학적으로 뛰어나고 규모도 거대한 개미집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즉, 개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이 모이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호기심 있는 대중의 자발적 참여, 자율성, 개방성, 수평적 관계에서의 협업 등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의 리더가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돌아가며 의견을 내도록 하는 회의나, 소수의 팀원끼리만 함께 일하는 협동과는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 ‘협업’이라는 용어와 많이 혼용되기도 하나 수평적, 자발적 참여 등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동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 수준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 집단 창의성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각의 결합, 호기심과 열정의 발휘, 인정과 성취감 등인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단 창의성(지성)에 왜 주목해야 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요즘 집단 창의성의 효과를 연구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창의성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실제로 변화를 주도해가는 빌게이츠(Bill Gates)나 스티브 잡스(Steve Jobs)와 같은 천재적 인물이 현실적으로 희소하다는 점이다.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제프리 코헨(Jeffrey Cohen)은 혁신가들은 뛰어난 관리자 중에서도 5~10%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희소한 천재를 찾기보다 오히려 구성원 다수의 지성을 모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대중의 지혜』의 저자인 제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교수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보다 다수의 다양한 대중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둘째, 설명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창출이나 적시 올바른 의사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전혀 엉뚱한 분야의 컨버전스도 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경쟁자도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 창의성을 통해 조직 전체 차원에서 생각의 범위와 깊이를 넓고 깊게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네트워크 인텔리전스(Networked Intelligence)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태어나면서 디지털을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성장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지식과 정보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앞으로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단 창의성 발현을 위한 과제

돈 탱스콧(Don Tapscott)이 말했듯 이제는 ‘참여와 협업의 시대’이다. 경영,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에서 집단 창의성이 활용될 전망이다. 집단 창의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치열한 개인 경쟁 문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공유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개인 경쟁 시스템으로 인해 진짜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눈에 보이는 동료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자원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토론을 통해 동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기보다 우선 비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집단 창의성은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단어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집단 창의성은 공유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리누즈 토발즈(Linus B. Torvalds)가 연구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함으로써 리눅스가 시작된 것처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문제를 공유해야 한다. 공유와 협력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찾고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 수준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 집단 창의성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각의 결합, 호기심과 열정의 발휘, 인정과 성취감 등인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리더들이 끊임없이 공부함으로써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리더들이 폭넓은 전문성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MIT 집단 지성 센터의 토마스 맬론(Thomas W. Malone) 교수는 '군중들의 창조와 리더의 의사결정이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비로소 집단 창의성(지성)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리더의 전문성, 통찰력과 더불어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집단 창의성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앤버트 아인슈타인은 '아이디어를 처음 보았을 때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더들은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어 보이면 제대로 듣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아냐'라고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구성원들의 창의적 생각을 리더가 앞장서서 제한한 셈이다. 특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이나 잘해' 등의 경직된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말은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만 강화시킬 뿐이다.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고, 이를 인정해주고, 호기심이나 탐구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보다 수평적이고 구성원들의 호기심 및 자발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 위계적 구조 하에서 구성원들이 수동적으로 일하던 전통 방식으로는 집단 창의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범위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인재들이 흥미를 느끼는 과제에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개방된 모습의 조직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어(Gore)사가 관리자(Boss)없는 수평 조직을 만들고, 구성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조직 규모를 200명 내외로 유지하며, 구성원 누구나 하고 싶은 업무 내용을 제의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집단 창의성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창의적 집단을 만드는 구성요건과 교육적 접근

글 |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iCreate 창의성연구소 소장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창의적 인간 혹은 창의적인 집단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창의성에 대한 지난 150년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개인 수준, 즉 창의성 혹은 개인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창의적인 집단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른 대답을 찾기 어렵다. 창의적인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구성원 전체를 가장 창의적인 인재들로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창의적 인재들로 집단을 구성했다고 해서 해당 집단이 자연히 창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창의적인 인재들이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은 창의성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창의성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관리만 잘 한다고 해서 매우 창의적인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열심히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창의적인 집단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 명의 뛰어난 인재 vs 여러 명의 전문가 집단

흔히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한 명의 뛰어난 인재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의 복잡성 및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는 100명의 창의적인 미술가들을 모아서 집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피카소와 같은 세계적인 대가 1명의 창의성을 능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발전이 빠른 환경에서는 뛰어난 한 명의 천재보다 다양한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e.g., Wuchty, Jones & Uzzi, 2007). 특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개방형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는 것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일 때가 많다.

그렇다면 과연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창의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과가 비례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을 구성할 때 창의적인 인재들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은 집단의 창의적 성과는 개인 창의성의 산술적 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집단마다 창의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구성원들의 능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혹은 조직의 환경적 조건에 달려있다(Taggar, 2002; Pirola-Merla & Mann, 2004). 이 같은 연구들은 창의적인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창의적인 집단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해봤다. 첫째, 집단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 둘째, 개별 집단에게 부여하는 과제의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집단 창의성을 올리려면 동일한 구성원들과 오랜 시간을 반복해서 협력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항상 새로운 구성원들을 찾아 협력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했다.

집단의 규모와 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집단 창의성

기존 연구들은 창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명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의 구성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면 다양한 경험,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적 기반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성원 수가 일정 인원을 초과하면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질 수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회의가 많아지고 회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며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의 구성원이 2명에서 12명까지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동시에 해당 집단들이 일반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난이도를 지닌 문제를 해결할 때 집단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에서 집단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구성원의 숫자 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일반적인 문제일 때는 집단 구성원의 숫자가 10명에 이를 때 까지 집단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어려운 문제일 때는 오히려 구성원이 10명 정도일 때 조직성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가 던져주는 시사점은 매우 명확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문제일수록 집단의 규모를 줄이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집단 구성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작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구성원과 협력할 때 집단의 성과 높아져

집단을 구성하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구성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다. 집단을 구성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기존 구성원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같은 동료들과 반복적으로 협력하도록

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구성원들과 일을 하도록 할 것인지 하는 문제다.

집단 창의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반복적 협력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 우선 동일한 파트너와 계속해서 반복해서 협력하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동일 구성원들과 계속 협력할수록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협력 횟수가 증가할수록 집단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협력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식은 1) 계속해서 동일한 파트너와 협력, 2) 매번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 3) 구성원 모두 각자 소속된 집단 구성원들 중에서 특정한 4~5명과 번갈아 협력하는 3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매번 새로운 구성원과 협력할 때 성과가 가장 높은 반면, 매번 동일한 구성원과 반복적으로 협력할 때 성과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미션이 어렵고 창의적일수록 매번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형태가 성과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협력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과가 현저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 구성원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익숙하고 친숙한 기존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학습 용이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구성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록 새로운 협력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학급편제 개발을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집단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학교교육의 제도 및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지금처럼 학급이라는 인위적 편제 속에서 학생들이 1년간 동일한 학급 동료들과 생활하는 것보다는, 개별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동료 학생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학급 편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계속해서 새로운 미션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비슷한 미션을 기존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교과과정의 다양성과 평가 기준의 다원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 창의성이 좋아지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서 성적이라는 단일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집단 창의성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다양성과 전문성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집단 창의성을 원활하게 발휘하기가 어렵다. ❷

학교 가는 길, 선생님이 되어 가는 길

박혜정 김해대곡중학교 교사

명찰, 학교 배지, 리본, 귀 밑 3센티미터의 머리길이, 발목을 두 번 접은 하얀 양말, 굽 높이가 3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검은색 구두, 이미지가 크게 새겨지지 않은 까만색 가방 등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던 예전 나의 학교에서는 규정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학생 주임 선생님과 길게 늘어 선 선도부 언니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으며 교문을 지나면 괜히 주눅이 들었고 긴장이 되었다. 당시 나의 아침은 늘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고 교문을 들어서는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전 긴장감과 고단함, 단조로움이었다.

지금은 정해진 시간 안에 교복만 어느 정도 잘 갖춰 입고 교문을 지나면 학생부 선생님들의 지도와 잔소리는 무사통과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반복되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이다. 더불어 교문 안에서의 생활도 공부에만 절어 있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물론, 지금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때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을 품고 학교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내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학교로 향하던 예전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학교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눈은 학교가 아닌 땅바닥을 향해 있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며 어깨에 맨 가방이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교가 아무리 바꾸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 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무조건적인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며 학교에 대해 아이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안타까워하기만 했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을 그 곁에서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는 아이들의 곁을 엔진의 굉음을 뿐이며 유유히 올라가면서 슬쩍 본 것이 다였지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제까지 본 등굣길 아이들의 모습은 진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학교로 향하는 나의 태도가 그대로 투영되어 보였던 것은 아닐까?

아직도 학생인 것만 같은데 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학교로 향할 때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전 처음 보지만 곧 나의 학생들이 될 아이들 사이에서 느낀 설렘, 기대감, 그리고 떨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래져갔고 지금은 직장인으

버스 안에서 이제 곧 나의 학생이 될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고 재잘거림을 들으면서 설레었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서 내려 우리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을 함께 걷다보면 바랬던 마음들이 조금씩 제 색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인이 아니라 다시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로서의 고단함과 피곤함만 가득 안고 끊임없이 무의미한 생각과 망상들에 사로잡혀 기계적으로 차를 몰아 학교로 향하고 있을 뿐이다. 교실에 들어서서 오늘이 되어 처음 만나는 우리반 아이들을 대할 때도 얼굴에 웃음기를 지우고 인사도 없이 가만히 교실을 응시하기만 한다.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출근길의 연장선이다. 여전히 나는 피곤하고 고단한 뿐이며 그런 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이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나의 태도와 마음을 투영시켜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학교로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려고 한 적이 없었다.

처음 학교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것 같다. 버스 안에서 이제 곧 나의 학생이 될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고 재잘거림을 들으면서 설레었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서 내려 우리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을 함께 걷다보면 바랬던 마음들이 조금씩 제 색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인이 아니라 다시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학교로 향하는 길이 무척 가파르고 길어서 눈은 학교가 아닌 바다을 향하고 발걸음은 힘겹고 등에 맨 가방은 분명 더욱 무겁지만 그 길에는 즐거운 재잘거림이 있고 오늘 다시 만나는 친구들을 대하는 반가움이 있다. 학교 밖에서 만나는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한 톤 높여서 불러주는 목소리에 수줍음과 반가움이 묻어나며 교실에서보다 한참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과 교실에서는 나누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운다.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하루지만 아이들의 발걸음에는 학교에서의 하루에 대한 기대감과 설렙이 조금씩 묻어나고 내 마음에서도 설렙과 떨림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다. ②

박혜정 교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생님'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좋은 선생님으로 한번쯤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담금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선행교육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Q

오는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수학교사로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국어과의 교육과정보다 앞선 단원과 융합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수업도 선행교육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선행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정부는 금년 2학기부터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의 창의력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매우 높고, 그 비용 역시 적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11년 71.7%, 2012년 69.4%, 2013년 68.8%로 나타났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24만 원, 2012년 23.6만 원, 2013년 23.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참여율은 70%대에서 60% 후반으로 다소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만,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선행학습도 한 몫을 차지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교육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교육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온/오프라인의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면, 선행교육이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은 동법에서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규제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과 규제 범위

그렇다면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하는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동법에서는 지필평가·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과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 반 배치(편성)고사 등을 위해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둘째,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셋째,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입학전형 시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및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반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수능 준비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고교 2, 3학년의 경우에는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질문의 요지는 수학교사가 타 과목과의 연계수업, 융합수업 등을 위해 단위 학기 내에서의 순서와 비중, 방법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하와 벡터' 과목을 한 학기 앞당겨 가르치는 등 다른 학기 또는 다른 학년도에 편성된 내용을 속진 하기 위해서 미리 당겨 가르치는 것은 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해당 학기, 학년에 편성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법에 위반됩니다.

공교육 질 개선과 사교육 부담 완화

학교 현장에서는 동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놓고 고민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입시준비를 위해 2학기 내용을 1학기에, 3학년 과목을 2학년에 미리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것을 감안하면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고충도 이해할 만합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제정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수월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구조 및 교육환경에서 탄생한 법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공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기대해봅니다. ❷

탁상 계획은 부정적 이론만 낳을 뿐…

학교장은 과감한 추진력으로 신뢰교육 이끌어야



학교장의 리더십이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공동체의 신뢰(믿음)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리더십은 상호적 신뢰를 그 근본으로 한다. 리더는 한 집단이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기 위해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정해진 방향에 따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목표 성취를 이끌어낸다.

필자는 1980년 교편을 잡은 이후 ‘믿음교육’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교동중·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재직 시 지역여건과 학생·학부모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투입, 접목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만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가 세인의 기대치에 맞고 그 운영과정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성공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개인의 역량 강화’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던 당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마전중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며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학교’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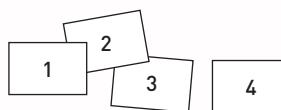
배움 – 자기주도 학습하는 유아독존실 조성

교장이 되면 자기만의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 그러나 41개 학급 1,600여 명의 대규모학교에서 여유란 없다.

출근과 동시에 메모지와 펜을 들고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열심히 메모하고 점검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교실 안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교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시설이나 학습 도구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일과이다.

그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방향은 부장교사들로 이루어진 기획회의와 교과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후 결정되며, 결정된 사안은 과감하게 처리 이행 한다. 평소 학부모에게도 “최적의 학습 환경이 조성됐을 때, 학생들의 효과적인 배움과 학습도 가능하다.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3층 중앙을 기존의 자기주도학습실(자성관)외에 3개의 독존실(3실)을 추가로 조성하고 자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월별로 이수증을 배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는 교실에서 이루어짐을 늘 강조한다. 학생들과의 눈빛 교환과 지식의 교환이 모두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교과에서의 만족도와 따듯한 배려가 신뢰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학교의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만족도는 곧 신뢰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3월부터 6월까지 제1기 방



1. 복도 유휴공간에 마련된 믿음트리에서 독서하는 학생들
2. 자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든 유아독존실
3. 전종공 교정의 사도대상 시상식
4. 학부모의 7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 모습



과후학교 65개 강좌가 개설되어 맞춤형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제2기 7월과 하계방학을 연계한 방과후학교 특강을 그 이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룸 – 이동도서관과 7교시 운영으로 학력향상 기대

어린 시절의 독서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키고 건강한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무척 중요하다. 독서활동은 본교의 중점 사업으로 아침시간(8시 25분~9시)에 학급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 도서관(움트리)과 학급문고를 이용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도서실 출입을 꺼리는 학생을 위해 열린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3~5층까지 복도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믿음트리(믿음으로 대여와 반납)라 명명하고, 2주일단위로 책을 층간 이동 배치하여 학생들이 많은 책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책걸상과 소파가 마련된 독서 쉼터를 조성하여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규수업 외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7교시를 운영(주당 150시간)하여 학습정리시간을 갖고 있다. 전자

기기 사용으로 인한 난필을 교정하고 우리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맛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요일에는 사자성어 풀이 글을 손글씨로 쓰게 하여 우리글 바르게 쓰기와 인성교육 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눔 – 동아리활동 활성화로 개인역량 강화

탁상의 계획은 부정적 이론만 양산하고 협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하다. 필자는 이러한 탁상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추진 정책에 대한 계획을 명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적극 의지로 추진하면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평소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학교의 핵심 역할임을 강조하고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더구나 대구모학교에 수용면적의 협소함은 교내 체험과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형식화해서 교육적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교내체육대회를 서곶근린공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교통안전, 음식

안전 등의 문제를 학부모들의 적극 참여와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해결하였다. 또 축제적 요소가 가미된 내실 있는 체육활동으로 200여 학부모와 1,600여 학생이 함께 하는 즐거운 체육축전을 이루어냈고 그 만족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가을의 학생축제도 공연부문과 전시부문, 놀이마당 부문,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 다가가는 학교행사를 만들었더니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련활동도 학년별로 일반체험, 극기체험, 전통 문화 체험으로 특화하였다. 학생들의 동아리활동도 적극 지원하였더니 대한민국 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금상, 인천서부수학원리탐구대회에서 은상, 인천시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에서 준우승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교육부 지정 '학생 뮤지컬 운영학교('13~'15년)'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꿈을 심고 키우는데 중요한 교육적 기여를 하고 있다.

베풀 –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교육활동 전개

본교에 부임한 이래 '믿음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맞벌이 가정을 배려하여 1차(14시), 2차(19시)로 나누어 시행한 결과 작년에는 650여 명, 올해에는 72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적극적인 호응이 이루어졌고, 설명회를 마치고 담임교사와의 개별상담시간을 갖도록 하니 늦은 시간(22시)까지도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3 일간의 자유상담시간을 운영하니 70% 이상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내방하는 성과를 거두니 학교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소통과 신뢰구축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인천서구청의 지원을 받아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전조기축구단에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와의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인재와 학부모들의 활발한 교육기부로 이어져 진로체험캠프의 진로명장 특강과 학부모의 공동 감독, 급식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나 학교와 주변적 요소가 학생교육활동에 함께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를 쌓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 업무영역별, 학년별로 세분화된 교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교무환경 조성과 남·여교사 휴게실을 재정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였다.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는 계획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교육적 명분과 발전적 효과도 출의 결론이 나오면, 설령 문제점이 있다 하여도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과감하게 수행하는 소신이 필요하며 이는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교의 교육활동들은 미래의 인간형으로 '가슴은 열정으로 두 눈은 세계로'의 원대한 목표에 바탕을 두고 계획·시행하고 있다. 강한 메시지를 담은 사업은 그만한 리스크가 따르며 이는 강한 소신과 추진력을 통해 실현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2세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무를 이행했을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교육의 견인자로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여름방학 진로지도, 학교 밖 보물찾기!



여름방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서의 숨 막힌 학업 경쟁에서 벗어나 모처럼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여유를 누리며 마음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또한 학교 밖의 여러 기관이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준비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호응이 부족하여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기 짜이 없다. 따라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 학교에서는 학교 밖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해주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직접 탐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학생과 기관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그럼 학교가 믿고 홍보해줄 수 있는 학교 밖의 올 여름방학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직접 진로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비용, 시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진로체험 부록을 활용하기 바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날짜에 임박하여 관련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바란다.

먼저, [한국잡월드](http://koreajobworld.or.kr)(<http://koreajobworld.or.kr>, 1644-1333,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를 알아보자. 이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관으로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현재 한국잡월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직종

은 고고학자, 경찰관, 패션모델, 기자, 요리사, 건축사, 자동차디자이너, 생명공학연구원, 로봇과학자, 항공기조종사, 물리치료사, 여행사직원, 은행원, 소방관, 경호원, 응급구조사 등 총 115개에 달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로그램과 날짜를 예약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올 여름방학 주요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는 자신의 흥미유형과 강점지능에 맞는 100여 개의 직업이 담긴 '직업별자리지도'를 제공하는 진로여권 이벤트와 10년 후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타임캡슐에 보관하는 타임캡슐 이벤트가 진행된다.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검사도 신규로 개설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인식검사'는 진로설계관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5차례씩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유스내비사이트](http://www.youthnavi.net)(www.youthnavi.net)를 통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유스내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공익적인 체험봉사활동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시 종합 정보사이트이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 신하, 교육청 산하의 공공기관,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정보를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프로그램 심사를 거쳐 승인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인 프로그램 정보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이 중 진로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서청소년수련관(www.youtra.or.kr, 02-2226-3611~4,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방학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먼저 봉사와 진로체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재능기부 직업봉사'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 청소년 대상이며 직업체험활동과 봉사 소양교육, 요리/빵 등 결과물 지역 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설되며 일일 3시간 프로그램으로서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고 한다. 방송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메디 액션 나도 방송인'은, 방송 전문가의 지도로 방송 체험을 통해 UCC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고 청소년이 대상이며 매일 2시간씩 오리엔테이션, 주제 선정, 촬영, 편집, 현상 실습, 결과물 상영 등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림고고' 프로그램은 초등 5학년~중학생이 대상이며 각 회차별 20명씩을 선착순으로 3회에 걸쳐 모집하는데 1회에는 파티쉐/냅킨공예/요리사, 2회에는 일일농촌 CEO & 나도 환경과학자, 3회에는 마술사/과학자/방송댄스 등 의 체험으로 진행된다.

역시 대표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창동청소년수련관(www.cdyouth.or.kr, 02-904-0924, 서울시 도봉구 소재)에서는 변호사 등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10가지 골라 Job's'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제공된다. '상상 Dream 원정대'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초등 3~6학년이 대상이며, 직업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회는 상계 백병원, 2회는 도봉 소방서에서 진행된다.

[진로체험 꿈길](http://www.ggoomgil.go.kr)(꿈길운영지원센터, www.ggoomgil.go.kr, 1566-9915) 사이트는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산망이다. 올해 3월에 개통하여 현재 시스템을 최종 점검 중이며 7월부터는 전국을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로체험프로그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 학교에서는 학교 밖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해주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직접 탐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학생과 기관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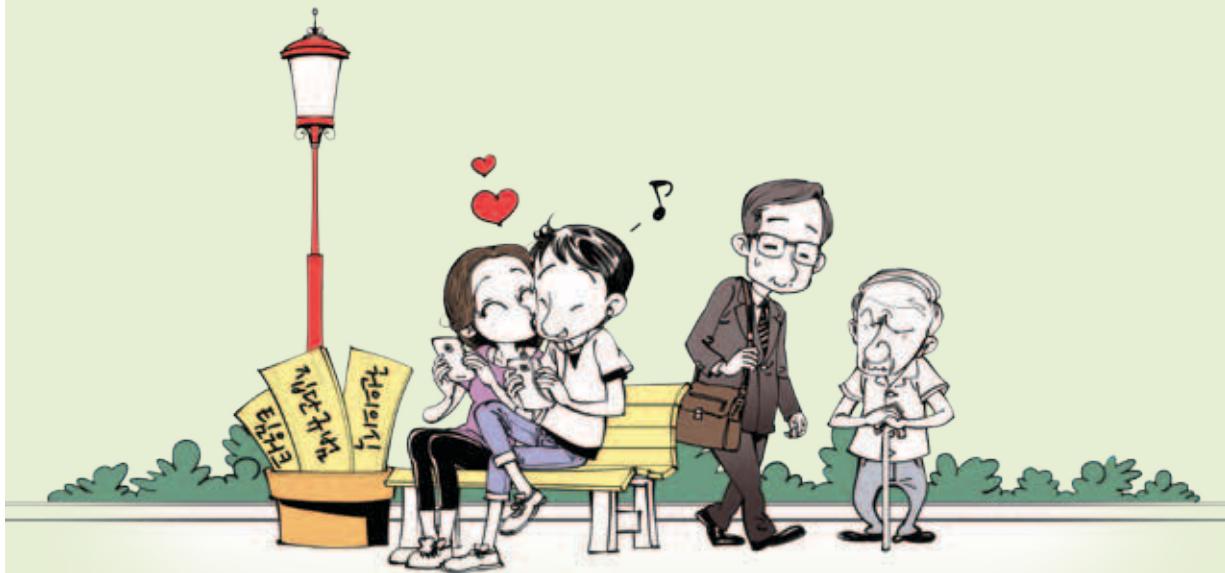
램을 분야, 일자,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서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일명 상상팡팡, 3388.gd.go.kr, 02-481-7088, 서울시 강동구 소재)에서는 8월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꿈을 찾고 서로의 진로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체험캠퍼스를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1박 2일 동안 4개의 직업체험 과정을 가족과 함께 미션과 게임으로 진행하며 저녁에는 맛있는 요리와 함께하는 쿠킹 직업체험 등이 있다. 일정은 강동구 일자산 캠퍼스에서 8월 7일~8일(1차), 8월 13일~14일(2차) 1박 2일이며 강동구 거주 주민, 청소년 총 40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진로탐색, 직업체험, 직업현장체험, 기업현장견학 등 4개의 분야에 걸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교과연계진로교육 원격연수 개설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통해 방학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교사들에게 방학은 진로지도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하고 알찬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되면서 교과 시간에 교과내용을 진로를 연계하여 가르치는 교과연계진로교육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과연계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지식이 그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세계에서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교과지식의 의미를 일깨우고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진로교육의 주요 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교육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15시간에 걸친 교과통합진로교육 원격연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초등 1강좌, 중등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기술·가정 각각 1강좌, 총 7개의 강좌가 각 시·도교육청원격연수원을 통해 7월과 8월에 개설된다.

끝으로 혹시 지금까지 진로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진로지도 노하우를 방학 동안 차분히 정리해보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것도 권할만하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함께 주관하는 '꿈끼 탐색주간 진로지도 우수사례 공모전'이 열리는데 공모 기간은 8월 8일부터 14일까지이다. 공모 부문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이며, 공모 내용은 '학교 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커리어넷 사이트(www.career.go.kr)의 진로교육 자료 코너에 탑재되어 있다)'을 기본형으로 참조하여, 3~4차시용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수작에는 교육부장관상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역시 커리어넷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❷

규범에 대한 세.대.차.이.



요즘 10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너무 빨리 변하는 우리나라 환경 때문인지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업과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대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고객층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은 학자들의 도움과 자체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연령층에 따른 특징을 규정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Y세대(구세대) : 1950년 이전, 즉 한국전쟁 전에 태어난 80~70대 노인들이다. 일제와 해방후 격동기를 겪으며 성장한 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고난도 많고 자랑도 많은 세대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예의를 중시하고 근면성실하며, 가정을 중시하지만 직장을 더 중시하며, 명예와 출세 그리고 경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비해 소비는 신중하고 알뜰하다.

X세대(낀세대) : 1961~1984년 사이, 한국전쟁 후 급속한 서구식 경제발전이 일어날 무렵 태어난 50~30대의 장년층과 청년층을 말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권위와 예절에 매이기보다 자유분방한 개인생활을 우선시하고, TV의 영향을 받아서 가벼운(?) 대중문화를 선호하지만 의외로 합리적이다. 그래서 Y세대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인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은 부모세대의 경력중시 사회적 존경과 인정 그리고 출세중시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IT와 개인화를 중시하는 신세대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낀세대'의 혼합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세월이 무상하여 이미 50대가 된 초기의 X세대(베이비 부머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와 X세대의 끝자락인 386세대들(민주화와 대중문화가 화두였던 사람들)도 이젠 어느덧 꽃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N세대(신세대) : 1977~1997년 사이, 경제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던 시기에 태어나서 네트워크(Network)와 함께 결핍을 모르고 풍요롭게 자란 세대다. 이들 중 현재 17~39세의 유복한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P세대(Power, Passion의 의미)라 부르기도 한다.

청소년은 전통 한국인의 가치 벗어나 서구화된 '신인류'

위의 세대 구분에 의하면, 10대 청소년들은 전통 한국인의 가치를 벗어나서 거의 서구화된 '신인류'일 것이다. 반면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낀세대)와 조부모(구세대)야말로 난해한 '구인류'일 것이다. 구인류가 신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즉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밝고 가볍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구김살이 없다.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이 강하고, 종교대신 대중문화를 즐기고, 노랫말조차 빠르고 경쾌하다. 구성진 '애수의 소야곡'과 비장한 '아침이슬'을 부르던 윗세대로서는 밝고 명랑한 자손들이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편, 경박해 보일 수도 있다.

둘째, 개인적이다. 낀세대가 위로 부모를 봉양하고 옆으로 형제자매를 챙기고 아래로 자식을 기르는 부담을 지는 반면, 10대들은 그런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자기계발을 중시하고, 진로를 실용적으로 설계한다. 그러니 이들에게 집단규범, 애교심, 애사심, 단체, 팀워크는 의식의 변두리에 놓인 개념이다. 부모세대에겐 자기들의 청소년시절보다 훨씬 똑똑한 반면, 모래알처럼 흘어지는 이기적인 세대로 보일 수 있다.

셋째, IT기술이 일상생활이다.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C세대(Cyber공간, 컴퓨터 Chip, Cable 티비, 유대용 Cellphone, 사회 Criticism, 급속한 Change를 의미함)라고도 한다. 그래서 SNS를 통한 정보교환, 의사소통, 물건구매가 생활의 일부다. 1주일에 10시간 이상 전자기기로 인간관계를 하느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선이 사라진 10대들을 보면, 대면관계에 익숙한 구세대는 편리하다는 기분도 들지만, 그렇게까지 기계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넷째, 탈권위, 비도덕적이다. 현재의 10대들은 부모세대처럼 부모, 단체, 직장, 국가의 권위에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는 미덕(?)이 없다. 연장자와 양보 없는 토론을 벌이는 것도 당연시하기 때문에 벌어지기 없어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도덕이 자유분방(?)해졌고, 도덕적인 가치 위에 멋, 존재감(카리스마), 자기 표현, 실질적 이익, 사생활 중시를 올려놓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들이 윗세대가 소중히 하던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서슴없이 표현하고 침해(?)하는 역발상적 태도를 보면 타락(?)했다고 느끼고 개탄하는 사람도 있다.

청소년의 생활과 성격의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는 이들에게 입시·진로교육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훌륭한 직업을 얻도록 혁신적으로 지도하느라, 이들의 생활과 성격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것을 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세기식 생각이 아니라 21세기식 생각으로 곁에 있어줄 올바른 멘토가 필요한 '방황하는 10대들'이다. 어디 숨 막히는 끈대말고, 오버하는 멘토도 말고, 실용적이고 괜찮은 10대의 네비게이션 같은 어른, 어디 없을까? ②

4만5천 학생저자 배출한 '책 쓰기' 열풍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대구여고 강당에서 학생 저자와 이를 축하하는 가족, 책 쓰기 동아리 지도교사, 출판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학생저자 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출판된 책은 성서초의『나답게 바꾸는 건 어때?』를 비롯한 초등학생 10권, 대구북중의『가지 못한 길』을 비롯한 중학생 9권, 경북고의『꿈, 너를 알고 싶다』를 비롯한 고등학생 15권 등 총 34권이다.

출판기념회에 출판된 서적들은 2013년 12월, 한 해 동안 일선 학교에서 책 쓰기 동아리 활동을 한 결과를 발표하는 '2013 책 축제'의 자리에 출품된 500여 권의 책을 대상으로 우수작품을 선정, 편집 과정을 6월까지 거친 결과이다. 이 책들은 각종 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정식 출판 본이다. 올해 출판기념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식전 공연 행사, 책 전달식과 학교별 기념촬영, 책 쓰기 지도교사와 학생저자, 학부모의 책 출판 사례 및 소감발표, 출판 도서 전시회, 소감쪽지 나누기 등의 행사가 열렸다. 특히 부모님의 자서전을 책으로 쓴 학생이 부모님께 쓴 편지

를 읽고, 부모님이 영상 편지로 화답하는 것으로 구성한 '학생저자가 말하다' 시간은 참가자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다.

출판작 선정에 참여하는 출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마다 출판되는 책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르의 접근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이다. 올해 출판되는 책 역시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패러디, 지역 문화논평, 음악 동화, 부모님 자서전, 성장 포토 에세이, 독서토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몇 권을 소개하면 화원초의『글 꽂, 피다』에서는 자신이 쓴 이야기를 악보에 담아 노래와 함께 만든 음악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수창초의『선생님과 함께하는 대구읍성 답사』에서는 학생들이 어린 역사학자가 되어 대구읍성을 주제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낸다.

올해 출판자에 선정되어 책 쓰기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출판하게 된 학생들의 소감 역시 작품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내 꿈을 고민하는 과정



2014 학생저자 출판기념회

을 출판물로 남기게 되어서 뿌듯하다', '나를 돌아보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책 쓰기로 특성화고만의 저력을 보여준 것 같다.' 등 학생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일 년간의 책 쓰기 활동을 의미 있게 돌아보고 있었다.

대구의 대표 교육브랜드인 책 쓰기 교육은 2009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책 쓰기 동아리 운영, 교사지원단 운영, 책 축제, 학생 저자 출판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대구행복역량교육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4만5천여 명의 학생저자가 탄생하였고 출판된 책만 112권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함께 책 쓰기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전국 대상의 연수회, 직무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②

‘놀자~’ 놀이교육 프로젝트로 인성교육 실현

“얘들아, 놀자!”

요즘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혼자 하는 컴퓨터 게임 등의 확산으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찾 아보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사라져가는 놀이문화를 복원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래끼리 자연스런 어울림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놀이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지적, 정서적, 신체 기능이 발달하고,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관계 능력이 신장된다. 아울러 장소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놀이와 놀이 규칙을 통하여 준법성과 창의성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놀이교육은 아이들의 인지,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하는 통로가 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놀이교육자료 개발·보급, 학교별 놀이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놀이잔치 추진 등 특색 있는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놀이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색

있는 놀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놀이중심 인성교육 자료인 『얘들아, 놀자!』 아동 놀이교육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놀이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놀이교육 전개

를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하여 현장 교사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향후에는 특화된 놀이중심 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해 놀이교육 앱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놀이교육 연구학교는 놀이교육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 개발 및 놀이교육 자료를 개발·확산하고, 놀이동아리 운영 등 놀이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놀이교육 연구학교인 **대전갈마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놀이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놀이방법 동영상을 제작하고 학교 놀이터에는 QR코드를 설치하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놀이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목동초등학교**에서는 ‘전래놀이 활



놀이중심 인성교육 정책 연구학교 학생들이 비석놀이를 하며 협동과 준법 정신을 익히고 있다.

동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인성 기르기'에 중점을 두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배우는 즐거운 놀이', '토요전래놀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전둔천초등학교**에서는 교사용 주차장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바꾸어 달팽이 놀이, 아기사방 놀이, 과학체험 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놀이중심의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 시대흐름에 맞는 놀이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놀이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전한 놀이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학교 밖의 또 다른 행복학교, 대안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고 다른 세계에 관심을 돌린 아이들에게 실패감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고, 학생들의 존재감을 높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행복교육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4년 학업중단대책 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상당수 중도 탈락 학생들이 무직 상태로 사회적 비행과 연결될 가능성 이 높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장·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학교로는 공립 Wees쿨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정서 불안 등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천해밀학교**(교장 서권수),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및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등 학교 진학·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정규학교로의 진입 및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한누리학교**(교장 박형식)가 있으며, 대안교육특성화고 등학교인 **산마을고등학교**(교장 안성균), 위기청소년이나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설립된 **인천청담학교**(교장 홍현웅)가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4년에 인천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해피스쿨)를 설립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 장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위탁희망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교 적응력과 합리적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시켜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을 최소화하여 꿈과 끊기를 키워가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또한 장기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 위탁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에게 징검다리 교실(위탁준비 교육)을 통해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대안학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위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자



인천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끌어안기 위해 여러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일체감동 캠프(학생·학부모 동반 교육)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회복과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위탁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장기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으로는 **사랑의 비전학교**(고, 부평구), **성산효마을학교**(중·고, 남동구), **아름다운학교**(중·고, 남구), **푸른꿈학교**(고, 중구), **하늘샘학교**(중·고, 서구), **한오름학교**(고, 연수구)가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정규 학교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한국 경상남도교육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일본 정부에 수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R) 로리 문고벤(Rory Mungoven)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보낸 감사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 5월 28일 경상남도교육청은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 로리 문고벤 아태국장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폐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일대기를 담은 영어판 『나를 잊지 마세요』와지도서를 받고 감사편지를 보낸 것이다.

로리 문고벤 아태국장은 편지에서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해준 김복득 할머니의 일대기 『나를 잊지 마세요』와 보충 자료집을 포함한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경상남도교육청이 쏟은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로리 국장은 또 “유엔 인권 고등판무

관은 일본 정부에게 최종적으로 수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돋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고 경상남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 통영 거주하는 김복득(96) 할머니의 증인록 『나를 잊지 마세요』와 교사용 지도서, 동영상 다큐멘터리CD 등을 만들어 지난 2013년 3월 7일에 출간했다.

이후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를 일본어판으로 제작해 일본 아베총리를 비롯해 정치·교육계에 전달하고, 올해 1월 영어·중국어판을 발간해 유엔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에 보냈다.

전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 대사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보내온 감사 편지에서 “책과 학습자료를 읽은 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모든 아시아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



1. 『나를 잊지 마세요』 영어·중국어판

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R) 로리 문고벤(Rory Mungoven)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의 일대기를 담은 『나를 잊지 마세요』 영어판을 받은 뒤 경상남도교육청에 보내온 감사편지

고 반성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 ④

NEWS BRIEFING

고등학교 입학 정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고입정보포털서비스(www.hischool.go.kr)’를 전면 개편하여 개통함에 따라 학생·학부모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6월 19일 고입정보포털서비스를 개통하였다. 고입정보포털서비스는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정보, 입시정보, 자기주도학습, 진학진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동안 학생을 선별하는 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사고, 영재학교 등의 입학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학부모 및 학생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스톱으로 고교의 유형별 특징과 입학정보를 볼 수 있다.

불안심리 치유를 위한 Wee센터 상담역량 강화 연수

교육부가 침몰참사를 계기로 자연재해나 인적재난 발생 시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을 위한 치유시스템과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를 위한 Wee프로젝트(학교 Wee 클래스-교육지원청 Wee 센터-교육청 Wee 스쿨)를 통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Wee센터 상담실장(2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성위기 반응과 PTSD, 트라우마 경험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개입방안, PTSD 및 재난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를 주제로 연수를 개최하였다.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전국 408교로 확대

교육부는 올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408개교에 ‘원격화상 진로멘토링’을 추가로 운영한다.

원격화상 진로멘토링은 직업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화상을 통해 전문 직업인들을 만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7개교에서 시범운영한 데 이어 올해 전교생이 60명 내외의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408개교로 확대·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멘토링 수업은 직업인 멘토가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직업 현장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멘토에게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강한 동맹의 끈이
경제성장과 평화통일의
힘입니다!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유엔군 참전과 정전협정’으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난 60여년간 평화유지와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룬 토대가 되었습니다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여 외국자본기업이安心하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방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 젊은이들은 북한(男 10년, 女 7년)대비 징집 군복무 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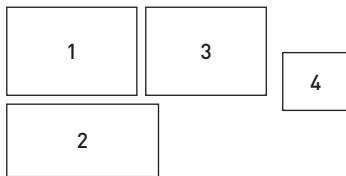
미래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전협정’과 ‘한·미군사동맹’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A photograph of a cave interior. The scene is dominated by large, textured rock formations on the left and right. A metal staircase with a handrail and two bright lights at the top leads into the dark center of the cave. The lighting creates a dramatic play of light and shadow on the rock surfaces.

자연의 인내가 빚어낸 세상

고수동굴

구만리장천을 휘휘 돌아와 선 자리엔
시간의 켜를 뚫고 우뚝우뚝 석순이 솟았다.
1년간 0.1mm를 자라는 속도로 건너온 세월
15만년은 결코 인간의 시계가 아니다.
영광과 갈등과 오랜 잊힌 날들이 지나고
마침내 굳은 땅속에서 품어낸 또 다른 세상



1. 커튼을 드리운 듯 펼쳐져 있는 고수동굴 종유석
2. 단양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삼봉
3. 푸른 계곡을 따라 기암절벽이 치솟아 있는 사인암
4. 소백산 품에 안겨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다리안관광지



동굴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흑 끼친다.

어둡고 좁은 동굴을 제 발로 들어가는 걸음은 신중하고 날카롭다. 걸음을 붙잡는 건 두려움이다. 어둠을 향하여 발을 디딜 때 전기가 끊기는 것은 아닌가 염려한다. 혹은 좁고 농수 계단이 무너져 내리거나 거대한 바위가 입구를 가로막을 것을 상상한다. 어쩌면 부유하는 인간의 삶이 불안과 손잡은 초라한 변명일지 모르겠다.

축축한 물기가 배어져 나온다. 텅- 텅- 낙하하는 물방울이 허공에 중심원을 그리며 귓가에 울린다. 고수동굴, 정식명칭은 단양 고수리 동굴이다.

세월이 빚어낸 정교한 기암괴석 장관

고수동굴은 1973년 10월 한국동굴학회조사단에 의해 학술조사

사가 실시되었고 약 15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5만 년은 하나의 물방울을 거대한 종유석으로 탈바꿈시킨 시간이다.

침식붕(浸蝕棚)이 발달하고 지하수가 풍부해 종유석과 석순이 즐비하다. 동굴의 길이는 약 1700여m. 동굴 안에 작은 기복이 있는 동굴미지형과 석화, 동굴산호, 선석뿐 아니라 동굴생물 등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한다. 동굴의 생애로 치면 '장년기'에 속하기 때문에 성숙미를 흡뻑 느낄 수 있다. 이곳은 1976년 9월 1일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동굴 코스는 A, B로 나뉜다. A코스를 선택하면 동굴 끝부분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A, B코스를 선택하면 동굴 끝부분에서 유턴하여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다. 왕복코스를 다 둘



러보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동굴 안에는 종유석·석순·돌기둥·유석 등을 비롯하여 석화·동굴산호·동굴진주·동굴선반·천연교·천장용식구 및 세계적으로 희귀한 아라고나이트가 만발하여 석회암동굴 생성물의 일대 종합전시장을 이룬다.

특히 상층부의 대광장에는 길이 10m에 달하는 대종유석이 비단 폭처럼 줄을 지어 내리뻗고, 동굴 안쪽에는 사람 손으로 다듬은 것처럼 정교한 기암괴석들이 늘어서 있어서 웅장한 지하궁전을 방불케 한다.

한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좁은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세심지(洗心池)를 만난다. 말 그대로 마음을 씻는 뜻이다. 지하수가 방울방울 떨어져 작은 물을 이루고 있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은 이 곳에서 다 씻어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괴석 중 백미를 이루는 것은 마리아상과 사자바위다. 자연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바위의 형태가 뛰어나서 동굴의 대표적인 볼거리가 되고 있다. 마리아상은 분수처럼 퍼지는 지하수



를 맞으며 서 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면 얼굴에 분무기로 뿐 어내듯 물이 와락 닿는다. 사자바위상은 사자가 포효하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그야말로 자연이 빚어낸 예술품이다. 이밖에도 독수리바위, 창현궁, 중만물상, 삼거리, 개선문, 선녀탕, 황금주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좁고 가파른 철계단을 한참 오르다가 아래를 본 순간 아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 발아래 놓여있다. 동굴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론 낮은 포복 자세를 해야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곳도 있다. 순간순간 공포와 마주하기도 한다. 코스 곳곳에 안내원들이 작은 등불을 켜고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해준다.

동굴길은 대개 좁은 철계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텁방객들이 많으면 정체되기 쉽다. 하지만 한사람이 겨우 다니는 폭이라 중간에 쉬기도 녹록치 않다. 그렇게 동굴길을 걷다보면 갑자기 얼굴에 후끈 한 공기가 닿는다. 빛이다. 이제 막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빠져나온 듯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다. 마법 같은 터널에서 풀려난 순간이다.

수묵화 속으로 들어가는 도담삼봉과 사인암

단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가운데 하나는 도담삼봉이다. 도담삼봉은 단양팔경 중에서도 제1경으로 꼽힌다.

남한강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가 풍경을 압도한다. 한 폭의 그림 속으로 썩 들어선 느낌이다. 늄름한 장군봉(남편봉)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교태를 머금은 첨봉(달봉)이, 오른쪽은 암전하게 돌이앉은 차봉(이들봉)이 솟아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첨을 둔 남편을 미워하여 돌이앉은 본처의 모습이라 하는데 볼수록 그 생김새와 이야기가 잘 어울려 슬그머니 웃음이 난다. 그리고 장군봉에는 '삼도정'이라는 육각정자가 있다. 일찍이 퇴계 선생은 "산은

Plus Tip



다리안관광지

등산과 휴양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으며 입구에서부터 세심한 정성이 엿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원두막, 야영장, 통나무집 등이 있어 소백산자락 안에서 힐링캠프를 즐길 수 있다.

단풍잎 붉고 물은 옥같이 맑은데 석양의 도담석양엔 저녁놀 드리웠네. 신선의 뗏목을 취벽에 기대고 잘 적에 별빛달빛 아래 금빛 파도 너울지더라.”는 시 한 수를 남겼다.

도담삼봉 주변에는 관광객이 피로를 풀 수 있는 벤치가 조성되어 있고 특히 야간에는 분수대에서 춤을 추듯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한층 더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도담삼봉과 멀지 않은 곳에 사인암이 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기암절벽이 마치 다른 색깔의 비단으로 무늬를 짠 듯 독특한 색깔과 모양을 지녔다. 푸르고 깊은 계류를 끼고 수백 척의 기암절벽이 하늘높이 치솟아 있어 탄성이 절로 터진다. 이곳은 해금강을 연상시키는 풍경으로도 유명하다. 추사 김정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예찬했을 정도로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사인암’이라는 이름은 고려 후기의 유학자인 역동 우탁(禹倬 1263~1342)이 지냈던 사인(舍人)이라는 벼슬에서 유래하였다. 단양이 고향인 그는 이곳을 유난히 사랑하여 자주 찾았다고 하는데, 조선 성종 때 단양 군수를 지냈던 임재광이 그를 기리기 위해 이 바위를 사인암이라 지은 것이다. 최초의 시조 ‘단로가’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묵산수화와 같은 풍경 속에 들어 앉으면 노래 한수가 절로 나올 듯하다. ②

가난할수록 더욱 즐기라

근대문명은 우리에게 수많은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정신적 가치의 상실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노자(老子)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慈] · 검소[儉] · 겸손[不敢爲天下先: 천하에서 감히 앞장서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의 삼보(三寶), 곧 세 가지 보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검소'는 근대문명이 초래한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서 각별히 재음미해야 할 덕목이다. '검소'는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옛 선비들은 이로써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쌓을 수 있다고 여겼다. 즉 부족함과 불편함을 통해 자기수양과 성찰을 꾸준히 함으로써 지나친 욕망과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자기 절제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선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소'의 솔선수범을 행해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퇴계 이황(1501~1700)의 삶을 소개한다.

사람은 가난한 데서 낙(樂)이 있다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貧當益可樂)” 퇴계가 집안 자제들과 제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이는 「논어』〈학이편〉의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사는 것(貧而樂)」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자공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떠합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기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답했다. 퇴계는 공자의 이 말을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바꿔 놓았던 것이다. 실제로 퇴계는 평생을 가난으로 살아온 자신을 ‘한유(寒儒)’라고 불렀으며, “산은 깊을수록 좋고, 물은 멀수록 좋으며, 글씨는 맛이 있어야 하고, 사람은 가난한 데서 낙(樂)이 있다.”면서 가난을 삶의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승화시켰다.

선생은 끼니마다 음식은 두서너 가지에 불과했으며 더운 여름철에는 건포(乾脯) 뿐이었다. 젊은 사람도 먹기 힘든 잡곡밥을 고량진미처럼 맛있게 드셨다. 일찍이 도산에서 선생을 모시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밥상에는 단지 가지나물, 무나물, 미역뿐이었으며 더 이상 없었다.

선생은 본래 검소함을 숭상하여 세수할 때는 도기(陶器)를 쓰고, 풀로 엮은 뜻자리에 앉았으며, 베옷에 끈으로 된 띠를 매고 칡으로 엮은 신발에 대지팡이를 짚는 담백한 생활을 하셨다. 계상(溪上)의 집이 좁은 탓에 모진 추위와 무더위를 다른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했지만, 선생은 너그러이 거쳐하였다. 영천군수 허시(許時)가 언젠가 찾아뵙고는 “이처럼 비좁고 누추한데 어떻게 견디십니까?” 했더니, 선생이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못 느끼겠다.”고 했다.

퇴계는 1일 2식(朝夕)과 삼색(三色)의 반찬을 원칙으로 삼았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건강관리를 위한 나름의 생활수칙이기도 했고, 평소 몸에 배인 검약의 실천이었으며 선비의 식사예절이기도 했다. 이처럼 퇴계는 먹는 것과 거처하는 곳 심지어 입는 것까지도 조금의 지나침 없이 분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검소'는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옛 선비들은 이로써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쌓을 수 있다고 여겼다. 즉 부족함과 불편함을 통해 자기수양과 성찰을 꾸준히 함으로써 지나친 욕망과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자기절제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내 갓과 신발이 모두 낡아서 새로 마련해야겠다. 집에 남은 무명 중에서 4, 5필을 인편에 보내도록 해라. 소박한 것이면 된다. 지금 이곳에는 베가 귀하고 또 내가 함부로 쓸 수도 없구나.

나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텔옷이 없으면 겨울나기가 힘든데, 양털 옷 한 벌로 20년을 지냈더니 이젠 구멍이 나고 다 해졌다. 여간 큰일이 아니다. 새로 살 돈이 없으니 걱정이다. 베 몇 필이면 구입할 수 있는지 가격을 좀 알아보아라. 어찌하든 살 궁리를 좀 해보아라.

퇴계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 아들 이준(李雋)과 62세 때 손자 이안도(李安道)에게 각각 보낸 편지글이다. 낡은 갓과 신발을 몸에 걸치고, 또 텔옷을 살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고민에 빠진 그의 모습에서 선비의 고고함, 곧 '한유(寒儒)'의 풍모가 절로 느껴진다. 어디 이뿐인가? 1548년 1월 단양군수에 부임하여 약 10개월 동안 근무한 뒤 그곳을 떠날 때 짐이라고 두 궤짝의 책, 입던 옷, 손수 주운 수석(壽石) 두 개가 전부였다.

도산서원에 얹힌 퇴계의 일화

그런데 퇴계의 소박하면서도 검소한 삶은 과거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형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바로 도산서당이다. 당시 한성에 머물고 있던 퇴계는 공사를 책임진 용수사 법연 스님에게 편지로 이런저런 지시를 했고, 이후 법연이 입적(入寂)하자 정일 스님이 이어받았다. 총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퇴계 회갑 때 완성되었다. 그런데 원래 퇴계는 부엌, 방[玩樂齋], 마루[巖廬軒]가 각각 한 칸 크기의 소박한 집을 구상했는데, 정일 스님이 서쪽으로 부엌을 반 칸 늘렸고 동쪽으로 마루를 한 칸 늘림으로써 결국 4.5칸이 되었다. 그러자 퇴계는 자신의 소박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아무튼 그는 이 단출한 집에서 스스로의 학문을 완성하고 제자들을 길러내어 대유(大儒)로 우뚝 섰다. 이것이야말로 퇴계가 시공간을 훌쩍 넘어 오늘날까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아닐까. ❷

구독방법



첫째,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유치원, 초·중·고교에 「행복한 교육」이 도착하고 있지 않다면 관내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신청해 주세요.

[시·도교육청 담당자]

서울시교육청 김미란 02-3999-120 부산시교육청 황지원 051-8600-224 대구시교육청 류은희 053-231-0052 인천시교육청 김동현 032-4208-226 광주시교육청 박재형 062-380-4250 대전시교육청 김연희 042-480-7584 울산시교육청 신진욱 052-210-5694 세종시교육청 김부환 044-320-1135 경기도교육청 우상원 031-249-0941 강원도교육청 전용 033-258-5386 충청북도교육청 이정훈 043-290-2055 충청남도교육청 이정원 041-640-6514 전라북도교육청 김정훈 063-239-160 전라남도교육청 김명자 061-260-0056 경상북도교육청 이선중 053-603-3283 경상남도교육청 박병규 055-278-1784 제주도교육청 강행필 064-710-0122



둘째, 대학, 지역도서관, 교육모임에 보내주세요

대학, 지역도서관, 5인 이상의 교육모임(동아리, 교육단체, NGO)이라면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happyedu.moe.go.kr)에 들어오셔서 구독신청을 해주세요.

[02] 2271-0992



셋째, 개인에게도 보내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개인은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시면 책을 배송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happyedu.moe.go.kr)에 들어오셔서 모니터단으로 신청하세요.

[02] 2271-0992

행복한 교육 웹진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하고 깊이있는 교육정책·정보지 월간 「행복한 교육」이 웹진을 새단장하여 더 빠르고 더 넓게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특색사업과 명예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지역소식도 만나보세요.

보기 쉽고 아름다운 디자인 구독 신청도 간편하게 클릭 모니터단 커뮤니티 기능 강화

명예기자들의 다양한 지역소식 풍성 시·도교육청의 특색사업 소개

五자만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에서 비롯된다.

이웃과 소통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가치를 담아 다섯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 바로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응모하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五자만담 당첨자 6월호 주제 : 밥상머리 교육 ○○○○○으로 시작하자.

꽃피는대화(정윤미) / 온가족모임(김영희) / 수다한바탕(최병원) / TV꺼두자(정미혜) / 다함께식사(정경석)

플러그를 뽑는 우리 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생활 습관은 절전.

전자제품을 쓰고 난 후

쓰지 않는 플러그까지 꼭 뽑는 우리 엄마,

어때요? 칭찬 받을만 하죠?



여름날, 고맙습니다!

칭찬릴레이 이벤트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칭찬릴레이를 시작합니다.

www.powersave.or.kr

가정



- 안보는 TV 끄기
- 청소기 사용 자제
- 에어컨 사용 자제

사무실



- 쿨맵시 입기
-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 선풍기 사용하기

상점



- 문열고 냉방 자제
- 적정온도 냉방
- 전등 끄기

26°C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2014. 7. 17(목) – 19(토) 10:00 ~ 17:00

KINTEX 제1전시장 3, 4홀 **(무료입장)**



생생한 현장을 만나는 전시

- ★ 꿈과 끼, 행복이 가득한 학교 전시관(155개)
- ★ 자유학기제, 학교 안전 체험 등 다양한 교육부 정책관

진로 탐색 및 올바른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상담

- ★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탐색하는 진로적성상담관
- ★ 진학의 청사진을 그리다! 대입상담관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 ★ 만들고 즐기는 교과 연계 체험활동
-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어울리는 다채로운 공연